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4년 12월호

리아호나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도록 돕기, 12쪽

성스러운 숲에서 배운
네 가지 교훈, 24쪽

성탄절의 실체를
인식하며, 36쪽

청소년 과장: 어떻게 새로운
개종자를 도울 수 있는가, 50쪽



“감사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초월합니다. 실망과 낙담, 절망을 뛰어넘습니다. 광광 얼어붙은 겨울의 대지에서든 따사로운 여름처럼 아름답게 꽃을 피워 냅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75쪽.



12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채웁시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평강의 왕

특집 기사

- 12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도록 돕읍시다
엘 톰 페리 장로
현재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다른
사람들이 구주를 믿는 신앙이라는
굳건한 토대로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18 각국의 개척자들: 스웨덴
—교회의 성장과 이주, 그리고 힘
잉에르 헤그룬드
순탄치 못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신다.
- 24 성스러운 숲에서 얻은 교훈
말린 케이 젠슨 장로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면
영원한 진리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30 잃어버린 500년: 말라기부터 침례
요한까지
에스 켄트 브라운, 리차드 나이첼
출자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 36 성탄절의 실재성
게리 이 스티븐슨 감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참된
구주임을 기억합시다.

교회 본부 기사

- 8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힘이
되는 십일조
- 10 단상:
성탄절의 기적
린지 알더
- 11 구약의 선지자들
말라기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우리 모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표지
앞 표지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표지 안쪽 이미지 저작권: Johnér/offset.com.



44

44 모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

알 발 존슨

마음에 의심이 스며들면 다섯 가지 원리를 기억합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우리는 어떻게 동물한테서 순종에 대해 배울 수 있을까요?



48 구주와 성찬

데이비드 엘 벅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50 교회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개종자들 이야기

조슈아 제이 퍼키

어떻게 하면 새로운 회원이 교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54 질의응답

교회 표준을 따른다고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56 선교 임지에서:

천사들이 올 필요가 없었다
제니언 켄슨 닐슨

57 포스터:

방을 만들어 주세요

58 나는 어디 있습니까? 영적 은사와 재능을 찾아내고 계발하는 법

머빈 비 아놀드 장로

저희 삼촌은 그 고철덩이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62 재림을 준비하는 법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내일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3 나의 성탄절 선물

더스틴 와드

어릴 살 때 침례를 받기는 했지만, 내 삶을 영원토록 바꿔 놓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계속 교회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64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어요

리차드 엠 롬니 및 미키 시모미야

일곱 명의 12세 친구들이 초등학교에서 청남이나 청녀로 진급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74

67 특별한 증인: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68 가정에서 초등학교 적용하기: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한다
에린 샌더슨, 진 빙엄

70 양시

브렌트 에이치 닐슨 장로

양시가 순종하기만 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71 우리들 이야기

72 전 세계 친구들:

저는 스웨덴에 사는 미나입니다
애미 제인 레빗

74 첫 번째 성탄절

젠 월크스

이 대본을 연기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세요.

76 안을 살펴보세요!

소피아 시

77 구약전서 인물:

다윗과 골리앗

78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날마다 성탄절처럼
케이트 스트롱인

2014년 12월호 제38권, 제12호

리아호나 10992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벨스, 앨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윌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머빈 비 아놀드, 크리스토퍼 골든, 레리 알 로렌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조셉 더블유 시타디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워너

운영 책임자: 린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담당자: 리사 캐롤리나 로페즈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리나 비버리,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다 플리트, 로리 폴러, 게리 에이치 가르, 라린 포터 건트, 민디 앤 레넷,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존스 오메르크, 조슈아 제이 퍼거,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머러사 윌슨

편집 인턴: 이던 디 패리, 코디 필립스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슨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제넷 앤드루스,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클린 윙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우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렌호스트

디자인 인턴: 수판사 왕위라파브

지역 재산 코디네이터: 플레트 네베크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제작 팀: 케빈 시 벵크스, 콘니 바스프 브릿지,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낄슨, 가일 타데 러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 접속하거나 해당 지역 교회 배부 센터나 워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 신청 및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57호, 제51권, 제1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4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영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koread@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원번호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될,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4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ecember 2014 Vol. 38 No. 1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교회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개종자들 이야기”, 50쪽: 가족과 함께 이 기사에서 소개하는 회원들의 개종 이야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 본다. 개종자가 당면하는 열 가지 어려움(기사에 포함)에 대해 읽어 볼 수도 있다. 가족과 함께, 워드 또는 지부에 새로운 회원이나 교회 활동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하는 회원이 있는지 알아본다. 그런 회원들과 친구가 될 계획을 세워보고 그들이 교회에서 맺는 관계 및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힘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한다”, 68쪽 및 “첫 번째 성탄절”, 74쪽: 이번 호에 수록된 성탄절을 주제로 한 활동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를 활용해 구주의 탄생을 기념한다. 예를 들어, 69쪽 상자 그림을 오려 두고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은 물론, 1년 내내 구주께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 드릴 방법을 생각해 본다. 74쪽에 있는 대본을 참고하여 가족들이 예수님 탄생 장면을 연기해 보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두 가지 활동 모두 자녀들이 성탄절에 구주께 생각의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10, 40, 42

간증, 44

감사, 10

개종, 42, 50, 63

개척자, 18

경전, 30

계약전서, 11, 30

배도, 30

봉사, 4, 10, 12, 41, 43, 56, 78

부활, 67

사랑, 4, 40, 50

사망, 40

선교 사업, 12, 18, 50, 56, 76

성찬, 48

성탄절, 4, 10, 36, 40, 42, 43, 57,

63, 74, 76, 78

순종, 30, 54, 70

스웨덴, 18, 72

신앙, 12, 24, 44, 80

십일조, 8

역경, 24, 54

영적인 은사, 58

예수 그리스도, 4, 7, 12, 36, 48,

57, 67, 68, 74, 80

우정, 50

의심, 44

재림, 62

평화, 7

회복, 24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채웁시다

성탄절 하면, 흔히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 일을 떠올립니다. 선물을 나누는 것도 소중한 전통의 일부라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선물은 성탄절 본연의 존엄을 떨어트리거나 뜻깊은 방법으로 구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은 아주 소박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선물들은 지금으로 치면 누가 보아도 변변찮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선한 셔츠나 장갑, 양말이 선물일 때도 있었습니다. 형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칼을 선물로 주었던 각별한 성탄절도 기억납니다.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는 데 값비싼 선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칠십인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하셨던 글렌 엘 러드 장로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수년 전, 성탄절 전날에 감독의 창고를 관리하던 중 러드 장로님은 단위 조직 지도자로부터 얼마 전 그 도시로 이사한 한 궁핍한 가족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이 사는 작은 아파트를 방문한 장로님은 젊은 홀어머니와 모두 열 살 미만인 네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찌나 딱하던지 어머니는 그 해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나 선물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성탄절 트리를 살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러드 형제님은 세 소녀가 인형이나 동물 봉제 완구를 좋아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살 난 소년에게도 무엇이 갖고 싶은지 물었는데, 그 굶주린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귀리 죽 한 그릇이요.”

러드 형제님은 아이에게 귀리 죽 외에 다른 것도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집을 나온 뒤, 형제님은 감독의 창고로 가서 먹거리며 당장 그 가정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마침, 그날 아침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써 달라며 한 인정 많은 회원에게서 기부금 50달러를 받아 두기도 했던 터였습니다. 러드 형제님은 자신의 세 자녀를 따뜻하게 입힌 다음, 그 돈으로 성탄절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자녀들은 그 궁핍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줄 장난감을 골랐습니다.

음식과 옷, 선물, 성탄절 트리와 트리 장식 몇 점을 싣고 러드 형제님 가족은 가난한 가족이 사는 아파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이들은 함께 성탄절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선물은 트리 아래에 놓아두었고, 어린 소년에게는 커다란 귀리 죽 한 상자를 선물했습니다.

홀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성탄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탁에 모인 러드 형제님의 가족은 누군가에게 성탄절의 기쁨을 전하고 어린 소년에게 귀리 죽 한 그릇을 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렸습니다.¹

그리스도와 나눔의 정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 아들의 탄생을 영화롭게 하시고자 선택하신,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 신성한 밤에 천사들은 부자가 아니라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린 그리스도는 저택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비단이 아니라 강보에 싸였습니다.



구속하십니다.

오늘날 구주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면 여전히 그분은 온유한 자와 낙담한 자, 겸손한 자와 환난 속에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가운데에서 성역을 베풀고 계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물론, 어느 때든지 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드리도록 합시다. 그분의 탄생과 은사, 삶에 깃든 겸손한 존엄을 기억합시다. 소박하지만,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연민 어린 행위를 통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과 치유의 힘으로 채웁시다. ■

주

1. Glen L. Rudd, *Pure Religion: The Story of Church Welfare since 1930* (1995), 352-53; 또한 Glen L. Rudd, "A Bowl of Oatmeal," *Church News*, Dec. 2, 2006, 16 참조.

소박한 첫 번째 성탄절은 구주의 삶을 알려 주는 전조였습니다. 그분은 지구를 창조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곳에 거하시며,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 계셨으나 미약한 어린아이로서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소박한 고결함의 본보기이며, 그분은 궁핍하고 병들고 낙담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인간의 부와 명예를 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 말씀, 일상의 행위들은 소박하고도 깊이 있는 존엄성의 표적이었습니다.

나누는 법을 온전히 아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따를 나눔의 모범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고독과 슬픔으로 마음이 무거운 이들을 동정하고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몸과

마음이 병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죄 때문에 마음의 짐을 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그들을 용서하고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우 흐트도르프 회장은 구주께서 세우신 나눔의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친다. 여러분이 방문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구주께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헤아려보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토론해 보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예컨대, 음악적 재능으로 축복받은 회원이 있다면 이웃들을 방문하여 성탄절 노래를 불러 줄 수 있다. 어떤 선물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영감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이 방문한 사람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다. 영감받은 내용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추후에 확인한다.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이 메시지를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6쪽을 참고한다.

청소년

다른 이의 경험에서 배우기

우호트도르프 회장님은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은 가장 소박한 성탄절”이었다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윗세대로부터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다. 많은 어른이 전쟁과 실업, 질병을 비롯한 여러 시련이 존재하던 시기를 겪으셨다. 와드

또는 지부에 계시는 고령의 회원들에게 뜻깊었던 성탄절에 대해 들려달라고 부탁해 본다.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도 좋다. 이번 성탄절에는 참되게 봉사하고 구주를 기억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모범에서 배우도록 노력한다.

어린이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사람들은 성탄절 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성탄절 트리 밑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놓아두기도 합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아래 성구를 읽고 선물을 색칠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눌지 생각해 본다. 구주의 생애와 사명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본다.



신앙, 가족, 구제

경전에서

이사야는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다.(이사야 9:6 참조) 미대륙에서 레이먼인 사무엘은 5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나타날 표적에 관해 이야기했다.(히라맨서 14:3, 5 참조) 예언된 날이 다가오자 믿지 않는 자들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겠다고 협박했다. 선지자 니파이가 “그날 종일도록 주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보라,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내일은 내가 세상에 [오리라.]”(제3니파이 1:12~13) 표적은 나타났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으며, “백성들은 다시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였[다.]”(23절)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누가복음 2:7)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평강의 왕

다음은 구주의 사명에 관한 여러 측면을 소개하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이다.

십 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구주는 참된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의롭게 생활하면 구주의 속죄와 그분의 은혜를 통해 개인적인 평안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¹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본부 상호부조회 제2보좌인 린다 에스 리브즈 자매는 이 진리에 대해 간증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주님께서는 제게 자비를 베푸셨고, 짐을 가볍게 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 큰 화평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²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는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³

보충 성구

이사야 9:6; 누가복음 2:14; 요한복음 14:27; 니파이전서 13:37; 교리와 성약 59:23

생각해 볼 점

구주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게 하셨는가?

주

1. 쿠엔틴 엘 쿡, “개인적인 평화: 의로움의 보상”,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5쪽.
2. 린다 에스 리브즈, “성약을 지키고 그에 따른 축복을 구하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20쪽.
3. 리차드 지 스코트, “가정의 평화를 위해”,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29쪽.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힘이 되는 십일조

우리는 수입에서 십 분의 일을 주님께 바침으로써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십일조의 법에 따라 더 큰 영적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가진 재물의 일부를 바친다.

십일조는 지상에 복음이 처음으로 가르쳐진 이래 계속해서 실천된 원리이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창세기 14:18~20 참조) 주님은 모세에게 명하시어 백성에게 십일조를 가르치라고 하셨다.(레위기 27:30~34 참조) 후에 니파이인을 방문하신 구주께서도 니파이인들에게 십일조의 법을 주셨다.(제3니파이 24장 참조)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계명을 회복하셨다.(교리와 성약 119편 참조)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우리는 현지의 신권 지도자를 통해 주님께 수입에서 십 분의 일을 바친다. 기금은 교회 본부로 전달되며,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및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 성스러운 기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결정한다.(교리와 성약 120편 참조)

교회는 십일조를 가지고 성전 및 집회소를 건설하고 유지하며,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을 지원하고, 교회 회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며, 선교사와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지원한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므로]”(고린도후서 9:7). 십일조는 기꺼이 바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십일조를 낼 때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기에 십일조는 그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십일조를 냄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말라기는 이렇게 가르쳤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정직하게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영적인 축복과 현세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

창세기 28장 20~22절, 말라기 3장 8~11절, 그리고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2012) 12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십일조를 냄으로써 받는 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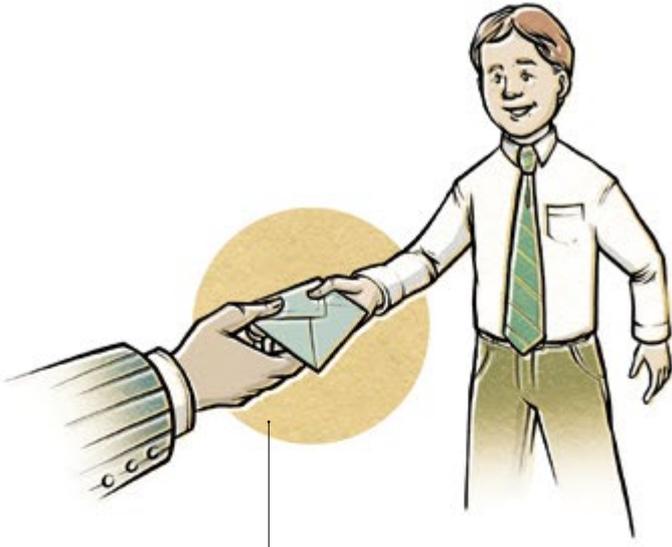
“십일조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시험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성전 성약을 지키고 영원한 성전 축복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

십일조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과 열정을 절제하도록 가르칩니다. 십일조를 바침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정직하게 되도록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과 자신의 부지런한 노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하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

충실하고 정직하게 십일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들 가운데 일부는 십일조처럼 현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침례식이나 성찬식이라는 외형적인 의식과 마찬가지로, 십일조를 내도록 한 계명은 현세적인 희생을 요구하나, 이 희생은 궁극적으로 훌륭한 영적인 축복들을 가져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일조: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는 신앙의 시험”,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26~27쪽.



십일조 및 기부금 일체는 감독단이나
지부 회장단 일원을 통해 주님께
바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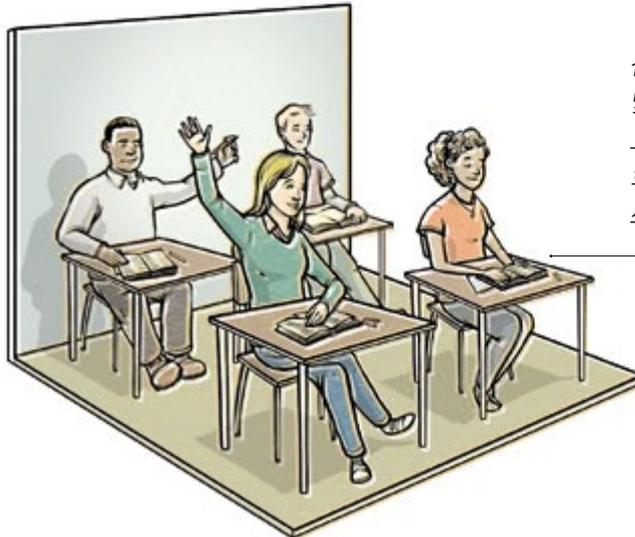


십일조는 성전과
집회소를 짓고
유지하는 데 쓰인다.



십일조는 경전 및
공과 교재를 번역하고
출판하는 데 쓰인다.

와드 및 지부에서 교회 본부로
보낸 성스러운 십일조 기금은
제일회장단이 포함된 위원회를 통해
사용처가 결정된다.



십일조는 교회 학교
및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 등록된 젊은
회원들을 교육하는 데
쓰인다.

성탄절의 기적

린지 알더

남편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전처럼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뛴다.



가슴이 따뜻한 밤이다. 분명 깨지고 멍들고 찢어졌는데도 내 가슴은 더없이 따뜻하기만 하다. 더없이 감사하다. 깊이도 넓이도 헤아릴 수 없는 감사함이 영혼에 열린 새 공간 속에 들어찬 모양이다. 소리 없이 불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그칠 줄을 모르는 것도 내 안에 가득한 감사 덕분일 것이다. 남편이 숨을 쉰다. 깊고 부드러운 숨소리다.

바로 두어 시간 전, 곧 태어날 아기가 뱃속에서 가볍게 발길질을 해대는 것도 모른 채 나는 남편의 병원 침상에 다가가 그의 가슴 여기저기 붙은 줄 사이를

헤집고 머리를 기대던 터였다. 귀를 갖다 대고 남편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던 경험은 영원히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남편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전만큼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뛴다.

병실을 가로질러 장식된 성탄절 줄 전구의 따뜻한 불빛을 보자 오늘 밤 이래저래 포근한 기분이 든다. 은은하게 발하는 불빛에 편안한 분위기가 생긴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포근한 느낌이 드는 건 남편 브라이언이 중환자실에서

나오자 내 좋은 친구들이 가까이 성탄절 전야의 계획을 취소하고 이곳으로 와서 병실을 장식해 주었기 때문이다. 창에 걸린 성탄절 트리용 1미터짜리 줄 전구는 친구들의 사랑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하면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한테 친구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다들 짐작이나 할까? 내가 남편 외에는 아무 생각도 못 하는 동안, 친구들은 내 아이들을 돌보고 집 청소와 세탁을 도맡았으며 냉장고에 음식을 채우는가 하면 우리 성탄절 선물까지 챙겨 주었다. 게다가 보듬어 주고 먹여 주고 상품권 카드와 현금을 보내 주는가 하면,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이메일과 쪽지로, 계획향 나는 술방을 주머니며 가방 가득 담아온 성탄절 장식품으로도 친구들은 나에게 애정을 드러내 주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울고 기도하며 금식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바로 시간이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

오늘 밤은 깊이 잘 수 있을 것 같다. 친구들을 향한 넘칠 듯한 사랑이 나를 감싸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드릴 일은 남편이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깊이 숨을 쉬고, 그의 심장이 피를 뿜어내며, 그의 몸과 영혼이 살아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그가 살아 있음은 나에게 일어난 성탄절의 기적이었다. ■ 글쓴이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산다.

말라기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말라기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더라. (제3니파이 24:1)

“나”의 사자”를 뜻하는 제 이름처럼, 저는 “여호와께서 ……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¹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약 450년 전, 제가 살던 시대에는² 많은 유대인이 낙담해 있었고 의로운 삶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³ 주님께서서는 저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의 유대인 제사들은 의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지만, 당시 레위인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은망덕했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으며, 더러운 떡과 온전치 못한 동물을 제물로 바쳤습니다.⁴ 그들은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으신 신권 성약을 깨트렸습니다.

제사들뿐 아니라 백성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성약 밖에서 결혼했으며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이혼했고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려 하지 않았습니다.⁵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런 사악한 행위들을 꾸짖으시는 한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기꺼이 용서하려 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⁶ 주님께로 돌아가는 한 가지 방법은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이는 것”⁷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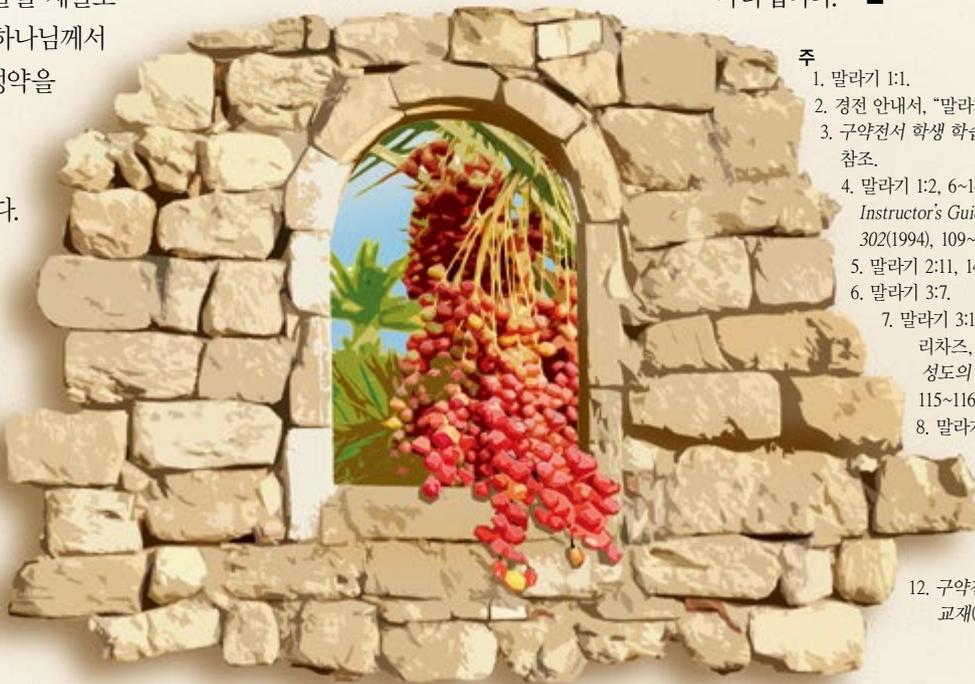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노라]”⁸ 그러나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이 “기념책”⁹에 기록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악한 자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나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¹⁰이라고 예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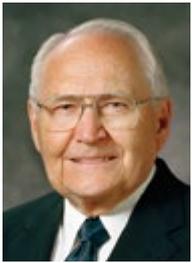
그리고 재림 이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신권 열쇠를 회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¹¹이라 가르쳤습니다.

제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충실한 자녀들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가 이러한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십니다.¹² ■



- 주
1. 말라기 1:1.
 2. 경전 안내서, “말라기”, 72쪽 참조.
 3. 구약전서 학생 학습 지도서(2002), 193쪽 참조.
 4. 말라기 1:2, 6~14; 또한 *Old Testament Instructor's Guide, Religion 301-302*(1994), 109~110쪽 참조.
 5. 말라기 2:11, 14~16; 3:8 참조.
 6. 말라기 3:7.
 7. 말라기 3:10; 또한 리그랜드 리차즈,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115~116쪽 참조.
 8. 말라기 3:14~15.
 9. 말라기 3:16.
 10. 말라기 4:1~2.
 11. 말라기 4:6; 또한, 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12. 구약전서 세미나리 교사 교재(2003), 215쪽 참조.

틀림 사진: PAVLO VAKRUSHEV/ISTOCK/THINKSTOCK; 대추야자 사진: AKSPHOTO/ISTOCK/THINKSTOCK; 카블렌드 성전에 나타난 엘리야, 대니얼 베이 루이스; 그리스도의 재림, 해리 앤더슨 작품의 일부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도록 돕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데
꼭 필요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강한 종교적 기초로
돌아오도록 도와십시오.

교 황 베테딕토 16세는 유럽, 호주, 미국 등지에 있는 교회들이 약해지는 세태를
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하나님에 필요한 것 같지 않다.
하물며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다. 이른바 전통적인 교회들은 죽어가고 있는
듯하다.”¹

오늘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따라온 예배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종교적
가르침이 그들의 생활 방식과 맞으면 그것을 받아들여 신앙의 일부로 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 만든 신앙을 키워 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앙과
영성을 소비재로 여깁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을
대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인류의 신앙을 파괴하게 될 이러한 위험한 풍조에
맞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몰몬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영속하지 않는 것들과 맞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되풀이해 경고합니다. 몰몬은
많은 니파이인들이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던 시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히 큰 부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자고하여
점차 교만하게 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눈에 부유하게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사실적 기록은 주
예수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탄생과
사명에 관한
기사입니다.**





**희생을 드리는 것은
신권 권세를 통해
시행하고 행해야 할
복음 의식으로서 지상에
제정되었고,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하나님의 아들이 치를
희생을 나타냈습니다.**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지 아니하더라.”(엘마서 45:24)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가다듬어 더욱더 굳건하고 더 확고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힐라맨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힐라맨서 5:12)

니파이는 이렇게 일깨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며]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생명[과] …… 바른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니파이후서 25:26~28)

우리는 이와 같은 주장을 떠받칠 만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들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사실적 기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탄생과 사명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인간의 첫 부모 시대부터 예언되었습니다. 모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 향한 길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를 뵈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차단되었음이니라.

그리고 주가 그들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양 떼의 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치라 명하니, 아담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더라.

여러 날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드리느냐? 한즉,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그런즉 너는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지며,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지니라 하니라.”(모세서 5:4~8)

이와 같이, 희생을 드리는 것은 신권 권세를 통해 시행하고 행해야 할 복음 의식으로서 지상에 제정되었고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하나님의 아들이 치를 희생을 나타냈습니다.

의식은 주님께서 절정의 시기에 오실 때 치르실 희생을 상징하는 형태로 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제물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도록 피를 뿌리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 모두가 구주의 돌아가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아담의 시대부터 구주가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행해졌다는 사실은 놀라기만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배도의 시기를 여러 번 거쳤음에도 독생자가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실 것이며 구주께서 속죄를 위해 흘리실 피는 불멸을 가져다주리라는 희망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관례는 구주의 속죄 이후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그 대신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주께서 지상에 오셨던 사실과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셨던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누가복음 22:19~20).

저는 성찬이 심지어 배도의 시기라는 암흑기를 거치면서도, 성스러운 구원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신권 권능이 지상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상 기록된 모든 시기에 걸쳐 구주께서 행하신 일을 상기시켜 주는 성찬이 있었음을 압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인간 사회에 속하는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속죄를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한 위대하고 고귀한 희생을 치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입증하자면, 세상의 경륜의 시대마다 드러내 보이신 그분의 구원 교리를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강력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구주께서는 우리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려 그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해답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듯, …… 저 또한 같은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에 순종하면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세상이 당면한 막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이곳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및 국가 집단이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를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만 우월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면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이 처한

문제에 적용하려는 것뿐입니다.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은 교회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이토록 창조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외침을 듣고 그에 응하여 나무의 열매를 시험하러 왔을 때 그 열매가 유익하고 훌륭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후기 성도는 그 진리에 따라 생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²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 구주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훌륭한 메시지를 듣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신권의 권능과 영광으로 그분의 교회가 지상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신권으로 성임된 이들에게는, 구주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을 위해 하늘에서 땀을 땅에서도 땀 수 있는 교리, 의식, 원리, 그리고 권능을 가져오는 일을 행할 권능이 주어집니다. 이 교회는 구주의 교회이며 구주께서는 그분의 선택된 선지자를 통해 교회의 제반사를 지휘하십니다. 그분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우리 구주이시자 구속주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태초부터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때가 찬 경륜의 시대입니다. 주님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거룩한 경전에 쓰여 있듯 모든 것들이 성취될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오늘날 이 시대에 회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날을 위해 예비하신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침례의 물에서 나오면서 주님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뒤로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복음대로 살 때 주어질 것이라 약속된 축복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일에서 그분을 대표하겠다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라는 기초로 돌아와 주님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그분이 마련하신 길로 회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전 성찬식에서, 저희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가지 일을 제안하셨습니다.

1. 매일 기도하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크고 작은

난관과 도전에 맞서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가가는 방편입니다. 그분께 기도로 말하고 귀 기울여 응답을 들으십시오. 기적은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 온 열정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³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도우십시오.

2. 매일 경전 공부하기

우리가 몰몬경에서 읽는 간증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몰몬경에 있는 239개 장 중의 233개 장이 구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⁴ 놀랍지 않습니까?

반드시 매일 경전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매일 경전을 공부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도우십시오.

3. 성전에 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기

여러분 중에는 성전에 가 본 분도 있고 가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전 추천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판사에게로 가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우리가 합당하다는 사실을 확인 받고, 그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한 표준대로 생활해야 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받을 만큼 합당해지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여러분의 의로운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매일 봉사 실천하기

베냐민 왕의 다음과 같은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모사이야서 2:17)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베푸는 봉사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베푸는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도우십시오.



새로운 차원에서 결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한 속죄의 희생물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복음이 회복되도록 하셨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필멸의 삶 동안 유일하고도 영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께 새로운 차원의 결심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필멸의 준비

기간 동안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강한 종교적 기초로 돌아오도록 도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께 용기와 담대함과 열정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11년 3월 6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열린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말씀인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세대였습니다”에서 발췌. 전문은 cesdevotionals.lds.org에서 볼 수 있다.

주

1. Pope Benedict XVI, Noelle Knox, “Religion Takes a Back Seat in Western Europe,” *USA Today*, Aug. 10, 2005; usatoday.com/news/world/2005-08-10-europe-religion-cover_x.htm.
2. David O. McKay, *Gospel Ideals* (1953), 5; 강조체 추가.
3. 토마스 에스 몬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68, 69쪽.
4. Robert J. Matthews, in *The Book of Mormon: The Keystone Scripture*, ed. Paul R. Cheesman and others (1988), 33 참조.

우리가 몰몬경에서 읽는 간증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몰몬경에 있는 239개 장 중의 233개 장이 구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교회의 성장과 이주, 그리고 힘

스웨덴에서 교회는 쉽지 않은 상황을 겪어 왔다. 충실한 회원들이 이주해 나가고, 언론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며, 환경은 더욱 세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주님은 이 특별한 땅에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신다.

잉에르 헤그룬드

18 49년, 브리검 영 회장은 몇몇 형제에게 세계 각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주었다. 스웨덴 항해사 출신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교회 회원이 된 후 솔트레이크밸리로 간 온 포슈그리엔은 영 회장에게 자신을 스웨덴에 선교사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한다. 그렇게 그는 부름을 받게 되었고, 1850년 6월에 스웨덴에 도착했다.

포슈그리엔 장로는 먼저 게블레에 사는 동생들을 방문했다. 동생 피테르는 투병 중이었는데 의사에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티였다. 포슈그리엔 장로는 동생들에게 자신이 선교 사업을 하는 목적을 설명한 뒤 피테르에게 기름을 바르고 축복해 주었고, 후에 피테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1850년 7월 19일, 포슈그리엔 장로는 동생 피테르에게 침례를 주었고, 피테르는 스웨덴의 첫 번째 개종자가 되었다.

포슈그리엔 장로의 여동생 에리카는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피테르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될 수 있었는데, 오빠가 도착하기 몇 달 전, 에리카는 늘 그렇듯 교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말을 건넸다.

“7월 다섯째 날에 한 남자가 책 세 권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요. 그 책에 기록된 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요.” 오빠가 성경과 물문경, 교리와 성약을 들고 온 것을 본 에리카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오빠의 간증을 믿었다.¹

애석하게도 포슈그리엔 장로는 석 달 후에 스웨덴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몇 달이 안 돼 다른 선교사들이 스웨덴에 들어왔다. 선교사들은 스코너 주의 스키나베크에 사는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들은 흔쾌히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개종하여 1853년에 서른여섯 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부가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스코너의 초기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칼 갑손이 룬드의 지부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갑손 형제의 헛간에서 열린 첫 번째 교회 대회에 100명 가량이 참석했으며 이 대회는 박해를 피해 밤중에 열렸다.²

충실한 여성들

복음을 받아들인 여성들은 스웨덴에서 역량 있는 기동 역할을 했다. 한 예로, 브리타 올스도테르 페손은 빙오케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1877년, 페손 자매는



1950년대 베스테로스의 회원들이 모이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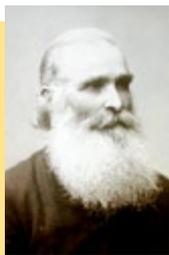
기도를 하고 짧게 말씀을 한 뒤 또 다른 노래를 부르고 기도로 모임을 마쳤다.

기자로 스톡홀름에 갈 일이 있으면 문테르 자매는 교회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전단을 돌리기도 했다. 그녀가 남긴 신앙의 유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테르 자매의 후손 여럿이 선교사로서 다시 스웨덴 땅에 발을 디딘 것이다.³

선교사들은 달라나 주의 스메이에바겐에도 파견되었다. 거기서 1886년에 얀손 가족이 교회 회원이 되었다. 얀손가의 후손 중 리이드 욘손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스웨덴에 도착한 선교사였다. 그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도 선교부 회장, 지역 대표, 성전 회장으로 여러 번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얀손가는 선지자의 아내인 프랜시스 몬슨 자매의 친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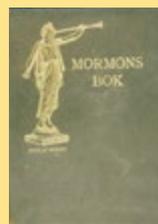
연대표

1850년: 최초의 선교사
온 포슈그리엔 스웨덴
도착.
첫 개종자 피테르 ▶
및 에리카 포슈그리엔이
침례받음.



1853년: 최초 지부
스피나베크 지부,
36명 회원으로
설립됨.

1854년:
스톡홀름 지부
설립.



◀ 1878년:
스웨덴어로 번역되어
인쇄된 몰몬경.

▶ 1904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바르텐스가달
3번지를 스웨덴
최초 교회 건물로
매입함.(이 사진은
1946년에 촬영됨)

가족을 부양하느라 스톡홀름으로 가서 손수 짠 옷감을 팔았다. 거기서 선교사들을 만난 그녀는 그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알아보고는 50세의 나이에 침례를 받았다.

폐손 자매의 개종과 주님의 사업을 진척하려는 충실한 노력은 더 많은 침례로 이어졌으며 빙오케르에 지부가 조직되기에 이른다. 그녀의 후손들은 아직도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폐손 자매의 고손녀인 라일라 크릴본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제 아이들과 손자 손녀 세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놀랍기만 해요. 현재 저희 가족 중에는 신권 형제도, 선교사도 많죠.”

또 다른 여성 개척자는 읍살라에 살았던 로비사 문테르이다. 1886년에 회원이 된 문테르 자매는 91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충실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안식일이면 모임 장소로 가서 불을 켜고 다른 회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아무도 오지 않을 때도 잤었다. 열한 시 정각이 되면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지.”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박해를 넘어서

수십 년 동안 교회 회원들은 매우 극심한 박해를 겪었다. 스웨덴인 미카엘 욘손을 포함해 여러 선교사가 수감되기도 했다. 욘손 장로는 1852년 체포되어 사슬에 묶인 채 말뚝까지 770킬로미터를 이송되었고, 성안의 감옥에 갇혀 굶주리고 헐벗으며 갖은 고난을 겪었다. 그러다 한번은 욘손 장로가 교육을 받은 총명한 사람임을 알아본 성직자가 그를 찾아와서는 “몰몬이즘”을 부정하고 루터교에 들어온다면 도와주고 교육을 더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욘손 장로는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강제 추방당했다.⁴

1857년에 베네시보리에서 태어난 칼 아 칼쿠이스트도 충실한 선교사 중 하나였다. 열일곱 살에 복음을 가르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품은 그는 연세핑 주변에서 교회 책자를 배부하는 부름을 받는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그를 위해 지부의 회원 중 일곱 명의 미망인들과 그 자녀들이 정장과 장화를 구해 주었다. 같은 겨울에 입을 외투조차 없어서 몇몇 교회 회원들은 외투를

베스테로스 지부 평회소 및 선교사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 포터 포슈그리엔의 사진: 후진 이스티넨 블레의 허가를 받아 게재.

입지 않는 시간에, 하루에 몇 시간씩 자신들의 외투를 빌려 주기도 했다.⁵

나중에 칼 형제는 유타로 이주하여 스웨덴계 이민자인 홀다 외스테르그리엔과 결혼했다. 후에 그는 두 차례 더 스웨덴으로 돌아가 선교 사업을 했으며 그중 한 차례는 스칸디나비아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으로서였다. 마지막 선교 사업 기간에 그는 교회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출판물을 바로잡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한 기사들은 솔트레이크시티에 거주한 적 있는 오슬라브 목사가 작성한 것이었는데 그는 스웨덴 내 반 몰몬 정서를 부추기도록 고용된 목회자였다. 예컨대 1912년에 오슬라브는 스펠스카 다그블라렛 신문에 기고한 기사에서 칼쿠이스트 형제가

그러나 1910년에 스톡홀름을 방문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제 회원들이 스웨덴에 남아서 교회를 일으킬 것을 독려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교회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모든 미국인 선교사들은 철수해야 했다. 그리고 스웨덴 현지 남성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요청받게 되었다. 1931년에 교회 회원이 된 프리츠 요한손은 새로운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전쟁 발발 1년 전, 그는 자기 소유의 식료품상을 처분하고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선교사가 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요한손 회장과 스웨덴인 선교사 일곱 명은 전쟁 중 중단됐던 핀란드의 선교 사업을



▶ 1905년: 스웨덴 선교부 조직.



1914년: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몰몬 중개상” 추방안에 반대대표를 던짐.

1926년: 교회가 회원들의 매장에 대해 법적으로 허가받음.

1952년: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스웨덴 국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들이 자유를 얻음. 교회는 회원들의 결혼을 집행할 법적 허가를 받음.

일부다처주의자라고 주장했다.⁶ 칼쿠이스트 형제는 국왕인 구스타프 5세와의 면담은 물론, 여러 공개 석상에서 오슬라브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했다.⁷

오슬라브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힘을 싣고자 현지 회원인 에이나르 요한손이 교회를 위해 대변자로 나섰다. 그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슬라브가 교회 선교부 사무실이 “백인 노예 매매상”이라는 주장을 하여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었다.⁸ 요한손 형제는 스톡홀름의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등 스웨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⁹

박해가 심한 시대였지만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개종했다.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때는 640명이 침례와 확인을 받은 1862년이였다. 그러나 개종자 대부분은 곧 유타로 떠났다. 당시는 유타에서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지도자들이 이민을 장려하던 시절이였다. 그 이주의 결과는 지금까지도 목격되고 있는데, 유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북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재시작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1946년, 스웨덴으로 돌아온 미국인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영어 회화반을 개설했고 반원 중 많은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스웨덴 회원이 유타로 이주했던 탓에 그 성장은 오래가지는 못했다. 과거의 적대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선교부 회장의 권유, 성전 의식을 받을 기회 등을 이유로 1948년부터 1950년 사이에 활동 회원 250명이 스웨덴을 떠났다.

그중에는 1915년에 교회 회원이 된 오스칼과 알베티나 안데손 가족도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오스칼과 알베티나 부부는 회원과 가정을 이룬 일곱 자녀와 함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시온으로 가자”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린다. 1949년부터 1950년까지 안데손 가족 중 스물아홉이 스웨덴을 떠났다. 오스칼과 알베티나 부부는 집은 물론 자녀 셋과 손자녀 넷을 스웨덴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막의 도시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 충실한 회원들에게는 성전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그 후 안데손 가의 회원들은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와 교회의 지도자로 봉사했다. 그중에는 아프리카의 지역 회장과 스웨덴의 성전 회장도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 남아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 교회 회원들도 있었다. 1949년에 침례를 받은 젊은 아버지였던 보 베네룬드가 그중 한

성전 부지 선정에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했다. 스톡홀름의 여러 지자체와 수차례 논의한 끝에 적당한 부지 두 곳이 가려졌는데, 지역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중 한 곳을 제안했으나 교회 제일회장단은 다른 한 곳이 더 나을 것이란 결정을 내렸다. 후에, 현지 지도자들이 추천한 곳이 성전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결정이 영감에 따른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스웨덴 매체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끌어내기

스웨덴의 교회

선교부: 1개
스테이크: 4개
와드: 24개
회원: 9,463명

1953년: 최초의 회원 부부인
벵트-아네 문함마르와 세르스틴
스코그의 결혼을 클라렌스 에프
윤손 선교부 회장이 집행함.



◀ 1955년: 스웨덴
회원들이 최초로
스위스 베른
성전에 감.

1965년: 스톡홀름
구벵엔에 교회가 지은
첫 집회소가 헌납됨.



사람이다. 그는 스웨덴 교회에서 선교부 회장과 지역 대표 및 성전 회장으로 봉사하며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해냈다.

스웨덴에 내려진 성전의 축복

1955년, 스위스에 성전이 헌납되자 이민은 크게 감소했다. 30년 동안 스웨덴 회원들은 여러 날을 기차와 버스, 승용차, 비행기를 타고서 스위스의 성전을 방문했다. 일 년에 수 차례에 걸쳐서 방문하기도 했다.

1985년, 스톡홀름에 성전이 세워져 헌납되자 회원들은 기뻐했다. 베스테르하닝에 와드의 회원인 베릿 베네르홀름은 성전 헌납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오래 갈구해 온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모두 흰 손수건을 흔들며 ‘호산나!’ 하고 외칠 때였죠.”



1982년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공연하는 몰몬 태버태클 합창단.

위해 교회는 많은 공을 들였으나 정작 그 일은 1984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으로 성취되었다. 헤리 가의 어린 형제들이 유럽에서 가장 큰 노래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 비친 이들의 모습으로 교회에 관한 여론이 호전되었고, 이때 많은 젊은이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또다시 긍정적인 기사로 언론을 장식한 회원이 있었다. 35세였던 주 스웨덴 미국 대사인 그레고리 뉴웰은 다양한 공개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뉴웰 부부는 2011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으로로서 스웨덴에 돌아와 2014년 7월까지 봉사했다.

대회는 이웃 국가의 젊은이들을 모아 그들이 새 가정을 꾸리는 데 일조한다. 정부가 넉넉하게 양육 수당을 제공하고 출산 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덕분에 부부들이 비교적 큰 규모의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

오늘날 젊은 활동 회원 대부분이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로 봉사한다. 귀환 선교사인 다비드 할디엔은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봉사한 첫 번째 선교사였는데 이제는 여섯 자녀를 둔 훌륭한 가정의 가장이다. 할디엔 형제는 가정에 복음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자녀들을 미혹할 만한 목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은 부모가 자녀를

1975년: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 스톡홀름에 최초의 스테이크를 조직함.



◀ 1985년: 고든 비 헝글리 회장이 스톡홀름 성전을 헌납함.

1991년: 러시아 회원들이 최초로 스톡홀름 성전을 방문함. 러시아 및 발트해 연안 몇 나라가 스웨덴 성전 구역으로 포함됨.



◀ 1995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스톡홀름 성전 경내에서 국왕 칼 구스타브 16세와 실비아 여왕을 영접함.

뉴웰 회장은 84명에서 205명으로 늘어나는 선교사들을 돌보았다. 스웨덴에는 아파트가 드물고 비싸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선교부가 신임 선교사들이 생활할 아파트를 56채나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성장

전후 스웨덴은 매우 세속적인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이민자도 적지 않았다. 현재 스웨덴 국민 여섯 중 하나가 국외 출신이다. 스웨덴 교회의 신회원 대다수는 이민자이다. 뉴웰 회장은 최근 개종자 일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각기 다른 28개국에서 온 형제자매들이 스웨덴에서 교회로 개종했습니다. 제 생각에 주님은 살던 땅으로부터 사람들을 분산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집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 시대에 이 특별한 땅에서 사업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교회는 회원들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연합 스테이크

강화하고 자녀의 신뢰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세속적인 환경과 일부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스웨덴에는 많은 충실한 회원들과 굳건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 이 회원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활동으로 가족과 개인이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또한, 그들은 세계의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관한 기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염원한다. ■

글쓴이는 스웨덴에 산다.

주

1. Box Elder Lore of the Nineteenth Century(1951), 58 참조.
2. Andrew Jenson, History of the Scandinavian Mission(1979), 81 참조.
3. Inger Höglund and Caj-Aage Johansson, Steg i tro(2000), 122 참조.
4. Jenson, History of the Scandinavian Mission, 53 참조.
5. Myrtle McDonald, No Regrets: The Life of Carl A. Carlquist(1985), 19~21 참조.
6. McDonald, No Regrets, 219 참조.
7. Jenson, History of the Scandinavian Mission, 331 참조.
8. McDonald, No Regrets, 239에서.
9. McDonald, No Regrets, 219 참조.



말린 케이 젠슨 장로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칠십인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함

성스러운 숲에서

얻은 교훈

칠 십인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받고 4년 뒤인 1993년에 저희 가족은 뉴욕 로체스터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부에는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이 1820년대 대부분을 보낸) 팔마이라 마을과 (1830년 4월에 교회가 조직되었던) 페이에트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아름다운 그곳은 산림이 우거지고 완만한 언덕과 투명한 호수와 개울, 따뜻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이 그 특징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로 성스러워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팔마이라 근처에 있는 조셉과 루시 맥 스미스의 집에서 서쪽으로 4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는 우뚝 솟은 너도밤나무, 참나무, 단풍나무와 기타 수목이 우거진 숲이 있습니다. 그 숲에서 열네 살의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이 신성한 출현으로, 종교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드린 조셉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며,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나무 숲은 교회 역사에서 '성스러운 숲'이라 부르며 경의를 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그 숲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신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자주 갔습니다. 매달 도착하는 새로운 선교사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떠나는 선교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성스러운 숲에서 경건하게 걷거나 그곳 의자에 앉아 명상에 잠길 때면 자주 나무, 씨앗, 열매, 뿌리, 숲과 관련하여 경전에 등장하는 참으로 많은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숲의 생태계로부터 몇몇 중요한 교훈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 네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¹

언제나 생각과
마음을 성스러운
숲에 두고 거기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시하기
시작하신 진리들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1. 나무는 언제나 빛을 향해 자랍니다.

성스러운 숲에서는, 숲 가장자리에서 자라는 나무와 수많은 숲 속 오솔길을 따라 서 있는 나무가 자기 위로 드리운 나무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종종 바깥쪽을 향해 가지를 뻗으며, 그런 다음에는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흡수하기 위해 위를 향해 자랍니다. 그렇게 구부러진 줄기와 가지는 거의 완벽하게 곧게 뻗은 주변 나무들과 현격하게 대조됩니다. 거의 모든 살아 있는 유기체가 그렇듯이 나무도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빛이 필요합니다. 나무는 광합성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흡수하려고 온 힘을 쏟습니다. 광합성을 통해 빛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가 됩니다.

‘빛’은 자연보다 영적인 영역에서 훨씬 더 중요한 촉매제입니다. 빛은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성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에 반대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신성한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에 있는 세력들을 나타냅니다. 악의 세력은 대개 날이 진 후나 어두운 곳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순결의 법을 어기고, 도둑질과 도박을 하고, 지혜의 말씀을 어기거나 그 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하신 행위를 하는 일은 주로 야음을 틈타서 일어납니다. 대낮이라도 그릇된 일을 하려 하면 단연코 암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나니, 영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마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84:46~47)

이 구절은 하늘로 향하려는 사람의 속성, 우리가 억누르지만 앓는다면 빛을 향해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 나아가 그분들과 같이 되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본능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모든 추악한 형태로 나타나는 죄라는 어둠을 피하고

여러분의 생활을 영과 진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강력히 권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음 내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고결한 친구들, 마음을 고양하는 음악과 예술 작품, 특히 경전과 같은 양서에서 얻는 지식, 진실하게 기도드리는 순간과 자연 속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 건전한 활동과 대화, 사랑과 봉사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 삶을 추구하십시오.



2. 나무가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스러운 숲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숲 관리에 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여러 해 동안 있어 왔습니다. 한 번은 실험할 구획을 정하여 ‘선별간벌’이란 기법을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산림 감독관은 그 구획에서 가장 크고 건강하게 자랄 만한 어린 나무를 판별하고, 그럴 가능성이 적은 나무와 주변 관목을 자르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선별된 나무들이 물과 빛, 토양 속 영양분을 차지하려는 경쟁으로부터 해방되어 월등히 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정반대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쟁이 없어지자 선별된 나무들이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빛을 향해 위로 가지를 뻗는 대신 수직으로 성장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하늘을 덮을 정도로 나무가 우거지자



반대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극한 상황에서도
얻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나무들도 성스러운
숲에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 소용도 없게 되어 버린 아래쪽에
가지를 여러 개 내고 옆으로 비대해졌습니다.
시험 구획에 있는 나무들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반대되는 것과 경쟁하고 극복해야 했던
나무들에 비해 크기나 활력 면에서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몬경에 담긴 주된 교리 중 하나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니파이후서 2:11)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기에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고, 이로써
선택의지가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대되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삶에서 일반적인
행복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열쇠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필요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곧, 아니면 나중에라도 우리는 모두
반대되는 것과 역경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단순히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필멸의 삶을 살고 있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나 질병, 유혹과 고독, 몸과 마음의
불완전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것이나
역경이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결과로서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어긋난 모든 것을 돌이킬,
속죄라는 방법을 주신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리버티 감옥에서 조셉 스미스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에 허덕일 때, 주께서 주신 다음
말씀에서 저는 큰 위안을 얻습니다.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교리와 성약 122:7)

성스러운 숲에는, 반대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극한 상황에서도
종종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번개, 돌풍을

동반한 강한 바람, 두텁게 쌓인 눈과 얼음,
부주의한 사람들의 침입 또는 훼손, 심지어는
주변 나무의 공격과 같은 반대와 역경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숲에서는 이렇듯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매우 튼튼하고 흥미로운 외형을
자랑하는 몇몇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나무는 격리된 장소가 아닌 숲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자연에서 나무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일은 드뭅니다.
나무는 대개 작은
숲에서 자라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숲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스러운 숲은 단순히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복잡한 생태계가 존재하며 다양한
동식물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야생화, 관목, 덩굴, 나무,
버섯, 이끼, 새, 설치류, 토끼, 사슴, 그밖에
다른 창조물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종들은 서로 교류하고 의지하며
먹이와 피난처를 얻고, 서로 의존하고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집단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 삶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도 이와
비슷한 연관성과 사회성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서가 아니라
함께 일합니다. 교회는 은둔처가 아닌 집회소를
세웁니다.

회복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침례 성약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서로 지원하는 공동체로 모이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모사이야서 18:8~10 참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고립되어서는 변영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나무는 생태계가 필요하며 건강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사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충실한 친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 가깝고도 영속적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과 안정감을 염원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분명 사교의 형태가 되지만, 진실하고 영속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정직하면서도 솔직한,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의사소통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가장 쉽고도 훌륭히 배울 수 있는 실험실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타인과 영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인 봉사와 이타주의, 용서, 인내심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도, 영감으로 조직된 이 교회에는 사교성을 키울 훌륭한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름, 모임, 반, 정원회, 평의회, 활동, 그 외 다양한 사교 기회를 통해 하늘에서 존재하는 사교 질서를 준비하도록 성품과 사교 역량을 키웁니다.

이 더 높은 질서에 대해 말하자면,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림이 그 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 다만 그 사림에는 지금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는 영광, 곧 영원한 영광이 수반되리라.”(교리와 성약 130:2)

4. 나무는 이전 세대 나무가 만든 영양분을 통해 강건해집니다.

성스러운 숲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숲은 단정히 다듬어진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해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봉사 활동을 계획해서 쓰러진 나무나 큰 가지, 덩불, 그루터기나 낙엽을 다 치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오래지 않아서 숲은 생명력이 서서히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성장이 느려졌고 새로 자라나는 나무도 적었으며, 야생화와 식물 중 일부 종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새를 비롯한 다른 야생 동물도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숲을 가능한 한 자연 상태로

두자는 제안에 따라 쓰러진 나무와 큰 가지를 부식되도록 그대로 남겨두어 땅을 비옥하게 했습니다. 낙엽도 떨어진 그대로 두었습니다. 방문자들도 정해진 길로만 오가게 해서 숲이 시달림을 덜 받게 하고 흙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일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숲은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현재 이 숲은 울창하게 우거져 본 모습으로 거의 돌아왔고 싱싱한 초목과 풍성한 야생 동물로 가득합니다.

이 경험에서 얻어진 이러한 교훈은 제 가슴에 소중히 와 닿습니다. 저는 7년 동안 교회 역사가이자 기록가로 봉사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수집하고 보존하며

유심히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그 숲의 생태계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과거 세대를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교리와 성약 21:1; 69:3, 8 참조)

과거라는 기초 없이는 미래 운명을 계획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계를 이해하면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진리에 대한 주님의 정의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니”(교리와 성약 93:24)

간직해 둔 기록에서 얻게 되는 과거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얻는 미래에 대한 지식 덕에 선택의지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특히 기초가 놓이던 이야기들에 친숙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즉,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몰몬경 출현,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엘리야, 일라이어스, 그 외 다른 사자들의 방문과 관련된 일화에는 회복의 토대인, 기초를 형성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정보가 넘쳐나는 이 기술 시대에 일부 후기 성도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오랫동안 수호해 온

믿음에 의문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중 일부는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또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의문이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또한, 복음 원리를 고수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역사를 공부한다면, 즉 파편적이거나 불완전한 지식이 아닌 더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 충분히 공부한다면 성신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을 주셔서 교회 역사에서 토대를 이루는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해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복된 교회의 역사를 믿는 확신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결론

팔마이라 근처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시절, 저는 종종 성스러운 숲에 혼자 가서 제일 좋아하는 “증인 나무” 옆에 경건한 마음으로 서곤 했습니다. 그 나무는 첫 번째 시현이 일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 있는 세 그루 나무 중 한 그루였습니다. 저는 그 나무가 말할 수 있다면 1820년 봄날 목격한 것을 제게 이야기해 줄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제게 말해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시작해서 지금 바로 이 시간까지 지속된 영적인 경험과 느낌으로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주이자 구속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영광스럽게 된 이 두 분이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들은 성스러운 숲에서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생각과 마음을 성스러운 숲에 두고 거기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시하기 시작하신 진리들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

2012년 5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말씀인 “성스러운 숲에 서십시오”에서 발췌. 전문은 cesdevotionals.lds.org에서 볼 수 있다.

주

1. 팔마이라에 거주하며 교회에서 일하는 산림 감독관이자 동식물 연구자인 로버트 패럿에게 감사를 전한다. 필자가 성스러운 숲에 관하여 이 글에서 나는 일부 통찰력 있는 부분에 관해 관심을 두게 해 준 고마운 사람이다.

잃어버린 500년: 말라기에서 침례 요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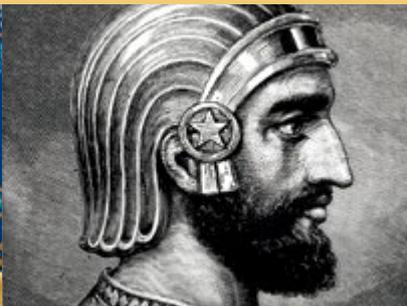
구약과 신약 사이
500년의 기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의
고대 블레셋 지역의
상황을 배우고,
구주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하는 데 도움이 될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에스 켄트 브라운
고대 경전 명예 교수
리처드 나이철크 홀자펠
브리검 영 대학교 교회사 및 교리 교수

기원전 450년경에 선지자 말라기가
지상의 임무를 마치면서 500여 년 동안
진정한 선지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즉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의 기간으로 알고
있다. 선지자가 없었던 터라 그 땅의 백성들은

여러 도당과 무리로 나뉘었고 각자가 경전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이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집단들 사이에서 여호와에 대한
참된 이해는 점점 희석되었다. 이어 찾아온
기나긴 혼돈의 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
침례 요한을 보내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열게
하심으로써 끝이 났다. 그런데 침례 요한과
구주께서 백성을 가르칠 때에도 많은 사람이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나서 심화된 여러 전통과
믿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 500년의 기간과



그리스인들이 기원전 332년

당시의 혼돈을 이해하면, 구주의 사명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더 새로이 할 수 있다.

유배와 속박: 불순종의 대가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계속해서 주님과 맺은 성약을 어긴다면 그들의 도시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예언은 기원전 600년경 유다 지방에 들이닥친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 때 마을과 성읍, 도시와 종교 생활이 파괴됨으로써 성취되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마침내 함락되었고, 추방당한 유대인들은 폐허로 변한 고향땅에서 강제로 내쫓겼다.(시편 137:1 참조) 소수만이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남았는데, 사마리아인도 그 일부였으며, 이들은 후에 이스라엘 이외의 민족과도 혼인했다.(예레미야 40:11~12 참조) 후에 유배자들은 블레셋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고향 땅을 재건하고 종교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에스라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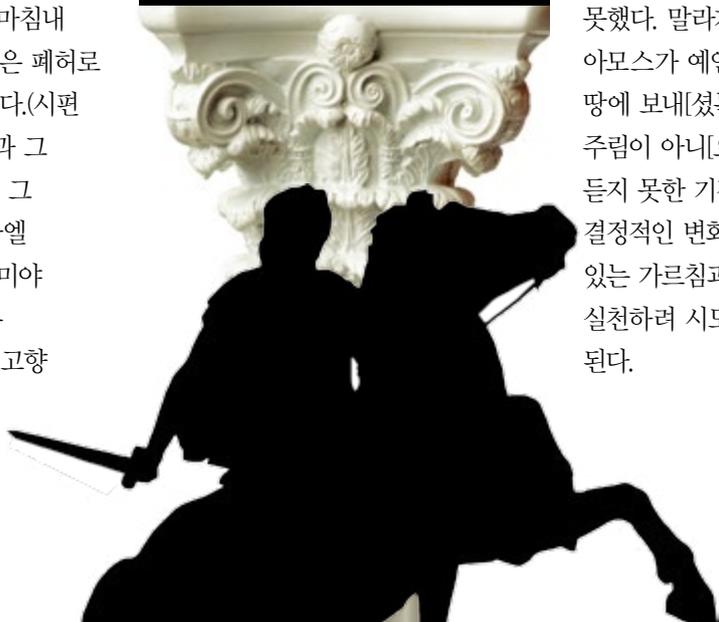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외국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예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 바사의 고레스 대왕, 바사의 다리오왕,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차례로 그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성취되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휘하의 장군들이 영토를 나눠 가졌고,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블레셋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참조) 마침내 기원전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 다시 한 번 유대인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다.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사마리아인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기원전 4세기 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4킬로미터 떨어진 그리심 산에 새로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예배와 믿음은 그리심 산의 새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서 분열되었다. 그들은 각자 신권 권능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경쟁적으로 주장했다.(요한복음 4:20 참조)

그러나 이러한 부흥도 얼마 지속되지 못했다. 말라기 시대 이후로,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은 “기근을 땅에 보내[셨는데] ……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요] …… 여호와와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었다.”(아모스 8:11) 이 결정적인 변화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해석 없이 율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려 시도함으로써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함, 해리 엔더슨 작; 유배된 유대인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 BALAGE BALOUGH/ARTSOURCE/RY; 백자 이미지: WAVBERAMEDIA LTD./THINKSTOCK; 키투스 대왕 그림: DORLING KINDERSLEY/THINKSTOCK; 다리오 1세 이미지: 아바디나에 있는 동상 조각, 페르세폴리스: GANNIA DAGLI ORTI/THE ART ARCHIVE AT ART RESOURCE; 그리스식 기둥 이미지: OLMARWAR/SHUTTERSTOCK.COM; 소테르 프톨레마이오스, 일세 초상이 있는 동전 이미지: BPK, BERLIN/MUENZKABINETT, STAATLICHE MUSEEN, BERLIN/REINHARD SACZEWSKI/ART RESOURCE, NY의 향기를 받아 제작



셀레우코스 왕조 기원전 198년

저항 운동 기원전 164년

독립 유대 국가 기원전 142년



배도 상태

이러한 배도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치, 종교, 사회적 쟁점에 따라 분열되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전통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각 종교 집단은 그들이 이해한 대로 모세 율법을 실천하려 노력했으나 각자 상이한 관점으로 경전을 해석했으므로 유대인 사회는 점점 더 분열했다. 그 결과 구주가 누구인가에 관한 참된 이해에도 혼돈이 오기 시작했다.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제사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동료인 레위인들이 유대인 사이에서 경전을 해석할 권리를 주장하는 가장 주요한 인사들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대제사 직분은 매관매직으로 부패되었다.

많은 유대인은 제사들과 레위인이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며(신명기 33:10) 따라서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했다. 서기관으로 알려진 그들은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도록 백성들을 깨우쳤던 에스라를 본받으려 했다.(에스라 7:25; 느헤미야 8:1~8)

이 지역은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했다. 알렉산더 대왕

블레셋은 셀레우코스 황제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안티오쿠스 4세였다. 안티오쿠스는 유대 사회를 강제로 희랍화하였다. 때로 많은 유대인을 처형했고 유대인의 종교 의식을 금지했으며 성전을 모욕했다. 그리스에 저항한 유대인 지도자 유다스 마카베우스는 저항 운동을 이끌고 성전을 재헌납했다. 백성들은 하누카(봉헌절)를 기리기 시작했다.



사후에 휘하의 장군들은 왕국을 나눠 가졌다. 시간이 흐른 뒤, 블레셋은 희랍어를 하는 셀레우코스 황제들의 지배를 받았다. 기원전 167년, 셀레우코스 지배자들은 유대인의 신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할례를 금지시키고 제단에 돼지를 바쳐 성전을 더럽혔다. 많은 유대인이 이에 저항했으며, 그들을 이끈 가문은 마카비 또는 하스모니아인들로 알려져 있다. 마카비 전쟁으로 알려진 이 봉기로, 결국 유대인들은 자유를 되찾았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 최초로 유대 국가를 세웠다. 동시에 하시디안, 또는 “경건주의자들”로 알려진 또 다른 종교 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한 대로 모세 율법의 모든 측면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보였다.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다른 종교 집단들 또한 경전을 해석할 유일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바리새인은 마카비 전쟁 직후에 생겨난 독립적 종교 집단이었다. 그들은 음식과 관련된 율법과 의례의 순수성에 지나칠 정도로 초점을 두으로써 유대 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그런 가르침은 사실 경전이 아니라 구전된 전통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들은 집안에서도 마치 성전에서 사는

로마인들 기원전 63년



듯 행동하려 노력했다.

반면 그 기원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두개인은 구전된 전통에 매달리기를 거부하고 모세5경을 엄격히 고수하며 다른 선지자들의 기록에는 등을 돌렸다. 이들 집단은 대부분 예루살렘 사회의 지도층이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그들의 세력은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할 만큼 막강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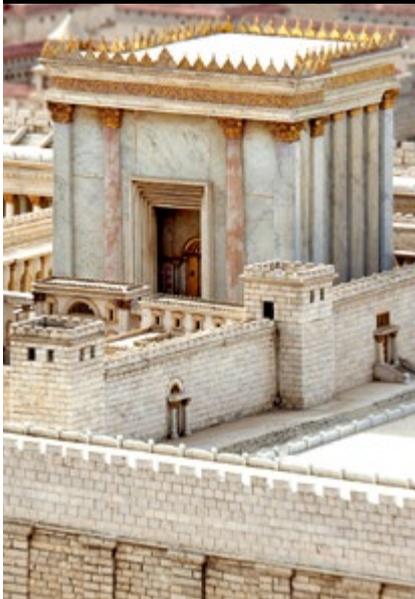
이 종교 단체들은 각자 그들의 예배 생활에 중요하다고 믿는 전통과 교리를 보존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의 인도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자의적인 해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기다리며

신구약 중간기 동안 이들의 종교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고대했다. 백성을 구원할 운명을 지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기다리며 시인들은 노래했고, 평범한 백성들도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꿈을 꾸었다.

메시아를 고대했던 한 무리는 에세네파로, 이들은 마카비 전쟁 때 형성되었다. 에세네파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들이 부패했고 성전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곧 메시아가 올 것으로 생각했다.

짧은 독립 기간이 지나고 예루살렘은 폼페이우스 대왕에게 점령당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로마인들은 에서의 후손인 헤롯 대왕을 유대 지방의 분봉왕으로 삼았다. 그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 구역을 확장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공화정을 끝내고 줄리우스 카이사르 이후 두 번째 로마 황제가 되었다.



그들은 메시아가 그들을 도와서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으로 믿었다. 로마인들은 예수 탄생 60여 년 전부터 블레셋 지방을 정복하여 통치하고 있었다.

회복에 앞서 개혁이 있었던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 기간에 놀랄 만한 분량의 종교적 저술이 있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이 희랍어로 번역되었고, 사해 두루마리와 외경 기록도 이때 시작되었다. 또 천사들과 부활에 관한 생각과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발달하고 다듬어졌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할 선지자가 없었으므로, 유대인들은 경전의 의미와 메시아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해 논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기다린 반면, 다른 이들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인 메시아를 주장했다. 일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신구약 중간기에 여러 집단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각각의 기대가 쌓인 나머지 이들은 참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에세네파이든 사두개인이든, 어느 집단도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집단의 일부 사람들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성역 기간에 그들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마태복음 21:23~46)

메시아에 관한 논쟁과 다툼은 이 집단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다. 새로운 경륜의 시대의 첫 선지자인 침례 요한은 참된 메시아가 오심을 선언하고 그분이 가져올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한복음 1:29).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 많은 유대인이 그를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역을 시작하셨을 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게]”(마태복음 7:29)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토론을 했고, 결혼과 부활과 신화에 관한 교리와 함께 구주로서의 그분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밝히셨다. 많은 종교 지도자가 그분을 거부했으므로(마태복음 26:4 참조),

가이사 아구스도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태어나셨다.(이사야 44:6 참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또한 이렇게 덧붙이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요한복음 8:19, 42).

너무나 다른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복음 진리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시대에 살고 있다.(에베소서 2:20 참조)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인도 없이 영적인 것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다. 후기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따를 때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를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교리와 성약 76:23~24) ■



사해 두루마리

현대의 성경을 보여 주는 창

도널드 더블유 페리
브리검 영 대학교 히브리 성경 교수

19 47년 초, 타미레 베두인족 목동 세 명이 잃어버린 동물을 찾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어느 동굴 안으로 돌을 던졌는데 토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굴에 들어가자 커다란 토기 항아리 여러 개와 그 안에 든 두루마리들이 보였다.*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베두인족과 고고학자들은 사해 북서쪽 해안에 있는 열한 개 동굴에서 수백 개의 두루마리 문서를 발견했다.

많은 학자가 사해 두루마리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본다. 이 두루마리들은 900개가 넘는 원문이 담긴 고대의 도서관과 같다. 그 두루마리의 대부분은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약 225개의 두루마리에는 (에스터를 제외하고) 구약전서의 가장 오래된 판본이 들어 있다. 중세 시대에 쓰였던 판본에 비해 1,000년도 더 된 것들이다. 대부분의 두루마리는 기원전 150년에서 기원후 68년에 제작된 것이었다. 일부는 기원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전통적인 성경 기록에 더하여, 사해 두루마리에는 성전 두루마리(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과 이상적인 성악 사회에 대해 묘사함)와 전쟁 두루마리(마지막 날들의 분쟁을 묘사함)가 포함되어 있고, 성경과 유사한 기록(에녹서, 노아서,

멜기세덱서, 야곱의 성약, 유다의 성약, 레위의 성약 등) 또한 들어 있다. 성경에서 에녹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두루마리에서는 에녹이 주요 등장 인물이며 특별한 재능을 지닌 위대한 선지자로 나온다.

대부분의 두루마리가 긴 세월을 거치며 심한 균열이 일어났지만, 학자들은 서기관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서기관들의 세심하고 꼼꼼한 작업은 그들이 성스러운 기록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베껴 전하는 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였음을 나타낸다. 성스러운 경전을 사랑하고 감사히 여기는 우리는 세심한 작업을 한 이 서기관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

고대에 기록을 일일이 손으로 전하던 방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이 현 세기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해 두루마리는 구약전서가 여러 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오면서 상당한 정확성을 유지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선지자, 서기관, 필사자들과 성경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책임을 졌던 모든 이에게 감사해야 한다. ■

* 두루마리들을 어떻게 발견하였는가에 대한 증언은 서로 다르다. 목자들이 여러 해 후에 그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증언했기 때문이다.





게리 이
스티븐슨 감독
감리 감독

구주의
탄생과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영원한
가족으로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해
주는 중재자도,
아버지께 대한
변호자도,
중보자도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의 실재성

제 아버지가 소년 시절에 사셨던
유타 중부의 작은 마을은
인근에 유타 호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개척자들이 오기 전에
그곳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냥과 낚시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호수 주변의 몇몇
곳은 화살촉을 찾는 사람들에게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섯 살이셨을 때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화살촉을 찾으러
워드 회원들과 함께 유타 호수로 부자간의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하루 종일 찾은 후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화살촉을
찾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니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트리처럼 생긴
예쁜 돌을 찾았어요.”

아버지는 화살촉을 찾기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진짜 화살촉을 손에
쥐고도 말입니다.

구속주를 인식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진짜이며 가장
중요한 것, 즉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야가 진짜가 아닌 것들로
흐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명한 교육 기관의 훌륭한
교수들조차 그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 추측만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약전서에 선언된 그리스도의
신성한 탄생이 전혀 신성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당시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이 친부이며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인간이었다고
믿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도덕 철학자, 심지어 가장 위대한
철학자였다고 말하며 그분을 너그럽게
칭송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의
핵심은 기독교의 모든 주장이 근거로 삼는
교리,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¹

저는 인공 눈 위에서 스키를 타 보았고,
가짜 고드름으로 가짜 성탄절 트리를 장식해



구주를 찾는 일



“때로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것들이 우리 바로 앞에, 그대로 보이는 곳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습니다. ……

우리가 생활을 좀 정리하고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다감하신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성탄절에, 그리고 한 해 내내 그분을 찾을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President Dieter F. Uchtdorf, Second Counselor in the First Presidency, “How to See the Christ in Christmas”, *New Era*, Dec. 2013, 48.

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특히 지금 같은 가상 현실의 시대에는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에 대한 간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고대와 현대의 경전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실재하는 것들에 대한 간증을 얻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구주의 실재성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모로나이서 10:4) 기도함으로써 진리를 찾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의 앞에 절하며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힘과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하여 그를 예배[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니파이후서 25:29)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

경전에는 그리스도의 탄생, 또는 최초의 성탄절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에 나오는 그런 예언을 읽으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예언이었음을 잊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록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장차 일어날 일을 매우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600여 년 전에 니파이는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를 시현으로 보고 기록했습니다.

“나는 또 나사렛 성을 보았으며 나사렛 성 안에 한 처녀를 보았나니 그 처녀는 심히 곱고 희더라. ……

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보는 처녀는 ……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시니라 하더라. ……

이에 내가 보고 그 처녀를 다시 보았더니 한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 보라!”(니파이전서 11:13, 18, 20~21)

구주가 탄생하기 124년 전,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그때가 이르며 그리 멀지 아니하니, 곧 …… 전능하신 주께서 권능으로써 하늘로부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흠으로 지어진 성막에 거하시며,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사 …… 큰 기적을 행하시리라. ……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 태초로부터 만물의 창조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칭하여지리라.”(모사이야서 3:5, 8)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83년 전에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선조들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니, 그는 처녀로서,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엘마서 7:10)

그리고 첫 번째 성탄절이 오기 불과 6년 전에 레이맨인 사무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즉 보라, 그가 오시는 때의 표적으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는 보라, 하늘에 큰 빛이 있어, 그가 오시기 전날 밤은 어둠이 없[고] ……

또 보라, 새 별이 하나 돋으리니, 너희가 결코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것일지라”(힐라맨서 14:3, 5).

유대인들은 이 위대한 사건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으며 그분이 영광 중에 와서



신뢰를 채우십시오. 편지를 쓰십시오. 부드러운 대답을 하십시오. 청소년들을 북돋아 주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충성심을 보이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원망을 버리십시오. 적을 용서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내가 남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다른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상냥하게 대하십시오. 조금 더 웃으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낯선 이를 맞아 주십시오. 어린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지구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에서 기쁨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말하고, 또 말하십시오.”³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탄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충만한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주의 탄생과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영원한 가족으로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해 주는 중재자도, 아버지께 대한 변호자도, 중보자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아들의 탄생과 사명의 아름답고 기적적인 실재성을 경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고 구속주이며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

주

1.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128.
2. Ezra Taft Benson, in Larry C. Porter, “Remembering Christmas Past: Presidents of the Church Celebrate the Birth of the Son of Man and Remember His Servant Joseph Smith”, *BYU Studies*, vol. 40, no 3. (2001), 108.
3. Howard W. Hunter, “The Gifts of Christmas”, *Ensign*, Dec. 2002, 18-19.

그들을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지상에 왕국을 세우며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처음으로 안 것은 누구였을까요? 산헤드린 공회나 권력과 영향력을 지닌 유력자들이었습니까?

성경은 한 천사가 땅에서 잠자던 낮은 신분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누가복음 2:10)을 전했으며,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마태복음 2:2) 것은 먼 동방의 박사들이었다고 말해 줍니다. 이 세상의 철학으로 시야가 흐려진,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은 구주의 탄생이나 그분의 성역 동안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 앞에 참된 것이 있었음에도 이를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

벤슨 회장님은 성탄절 기간의 위대한 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우리가 더 민감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정도에 대해 숙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더 관용을 베풀고,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배려하고, 더 너그럽고 진실하며, 더 많은 희망과 자애,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 줍니다. 이는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입니다. 성탄절의 정신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잠깐일지라도 더 많은 관심과 헌신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²

이번 성탄절에는, 이 특별한 시간의 정신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 때 행동으로 우리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진실로 구속주임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 주도록 합시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님은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다툼 것을 화해하십시오. 잊었던 친구를 찾으십시오. 의심을 버리고 대신

어머니의 성탄절 퀼트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는 열 살 난 우리 딸이 뇌암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에 찾아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아이의 방을 둘러보는 동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딸이 절절하게 외쳤다.

클라리사는 떠났지만, 그 방은 여전히 아이가 지상 생활 동안 남긴 물건들로 가득했다. 이제 아이의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어떤 것 한 가지도 떠나 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특히 아내에게는 더욱더 그럴 것임을 알고

있었다.

병원, 화학 요법,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온갖 소용돌이를 감당해야 했기에 청소나 정리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아이가 침대 머리 위 선반과 책꽂이에 정리해 둔 물건을 상자에 담는 동안 여러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딸이 가장 좋아하던 담요, 책, 목걸이에서부터 봉제동물 인형들, 교과서와 미식축구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에 가슴을 파고드는 의미가 있었다. 각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묻는 동안

아내는 흐느꼈다.

우리는 클라리사의 많은 책을 모아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가져가서 다른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이의 옷장은 이웃에게 주었다. 옷의 일부는 사촌들에게 갔다.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이의 물건들을 떠나 보내는 힘든 상황을 조금 수월하게 해주었다.

몇 주 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다. 십 대인 두 딸이 특별한 성탄절 선물을 만드는데 클라리사의 옷들을 좀 사용해도 되겠냐며 아내에게 물어왔다. 아이들은 가족의 추억이 서린 옷들을

나 는 아내가 상자를 열고 딸들이 자신을 위해 만든 선물을 보며 지었던 표정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삽화: 브리짓 클라크

내 손길이 필요한 건 지금이다

플라서 조심스레 네모로 잘라내어 클라리사 생애의 소중한 순간들을 상징하는 조각들로 만들었다.

성탄절이 되기 며칠 전, 딸들과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도록 도와준 청년 지도자가 나에게 그들이 만들고 있는 퀼트 이불을 보여 주었다. 나는 클라리사 생애의 사건들을 나타내는 각각의 천 조각을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아이의 미식축구 유니폼 조각, 가족 여행을 가서 아이에게 사 준 티셔츠에서 나온 조각, 병원에서 아이가 입었던 잠옷 바지 조각 등이었다.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각각의 조각이 우리가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딸들에게 그 이불이 완벽하다고 말해 주었다. 아이들의 엄마가 아주 좋아할 것이었다.

성탄절 아침, 나는 마음으로 전해진 선물을 보았다. 아내가 상자를 열고 딸들이 자신을 위해 만든 선물을 보며 지었던 표정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아내는 그 성탄절 퀼트 이불을 두르고 추억을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만날 날을 꿈꾼다. ■ 제드 패커, 미국 유타

나는 재봉틀 앞에 앉아서 플란넬 천의 가장자리를 박기 시작한다. 어린이 모양의 무늬가 찍힌 은은한 색의 천이 내가 만들고 있는 신생아용 담요의 앞면을 장식하고, 그에 어울리는 다른 색깔의 천이 뒷면이 된다.

우리 와드 상호부조회는 빈곤 지역과 재난 지역에 전할 신생아용품 키트를 만든다. 나는 아마추어 재봉사이지만 참여하려는 열의는 뜨겁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천을 고르고 담요 크기에 맞게 네모로 자르는 일이 즐겁다.

나는 두 천의 오른쪽 면을 겹쳐서 가장자리를 재봉틀로 박는데, 한 군데를 비워 두었다가 오른쪽 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뒤집는다. 그런 후 가장자리를 바느질하고, 모서리를 박고, 다시 담요를 뒤집어서 색깔이 알록달록한 면이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트인 곳을 바느질한다.

가장자리는 다시 한 번 돌려 박아서 튼튼하게 만든다. 나는 천의 위치를 잡고 빠르게 재봉틀로 박는다. 집안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재봉 일을 마치려 서두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내가 아기 예수를 위해 이 담요를 만들고 있는 거라면?’

그 생각에 나는 속도를 줄이고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하려고 꼼꼼히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주의를 해도 바느질이 반듯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가운데에 가로세로 25센티미터의 정사각형을 박아서 앞면과 뒷면을 고정한다. 두꺼운 종이로 만든 본을 만들어 담요 가운데 두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가볍게 표시 선을 그린다. 천을 제자리에 놓고 재봉 바늘을 내려 조심스럽게 바느질한다.

작업이 끝나면 실을 자르고 완성된 담요를 들어 올린다. 그런데 정사각형이 아니다.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의 중간쯤 되어 보인다.

나는 그 담요를 옆으로 치우고 새 플란넬 천을 꺼내 다시 시작한다. 주님께 바칠 만한 선물이 되도록 더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전보다 약간 나아졌을 뿐이다. 내가 만드는 담요는 모두 조금씩 부족하다.

어느 하나도 구호용품을 모으는 장소로 가져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다. 어쨌든 올해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계속 연습할 것이고, 아마 언젠가는 제대로 된 이불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 ‘바느질 솜씨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떠나고 말 거야.’

이해가 된다. 봉사할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구주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받아들이신다.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말이다. 부드럽고 깨끗한 담요에 싸인 신생아가 담요 귀퉁이가 직각이 아니라며 잠들기를 거부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노력이 전 세계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마음에 떠오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담요를 만든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언젠가 재봉질에 완벽해질 때가 아닌 바로 지금 말이다. ■ 진 헤덴그렌 모울트리, 미국 워싱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성탄절 선물

그 날은 성탄절 전야였고, 우리 가족은 해마다 그렇듯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시계가 자정을 알릴 무렵 아빠는 우리를 불러모으고 보여 주실 것이 있다고 하셨다.

성탄 전야의 모든 준비와 흥분 때문에 나와 언니들과 여동생들과 엄마는 아빠도 이날을 위해 뭔가 준비하셨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우리가 모두 모여 편안히 자리를 잡자마자 아빠는 슬라이드 몇 장을 보여 주기 시작하셨다.

아빠는 슬라이드에 그리스도의 그림, 성탄절 장면들, 공들여 만든 문구들을 넣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다. 아빠의 발표 자료는 또 우리에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구주의 탄생에 대해 느껴야 할 행복과 감사를 떠올리게 했다. 색색으로 장식한 성탄절 트리가 있는 슬라이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줄 것이다.”

아빠의 발표 중에 가장 특별한 부분은 아빠가 구주를 그린 그림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알린 것이었다. 그건 평범한 소식이 아니었다. 그런 최고의 소식은 처음이었다. 구주의 모습 위로 문구가 나타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받기로 했다.”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교회에 들어오기로 결심하신 것이다! 그 결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쉬울지도 모르나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25년 동안 복음을 공부하고 교회에 대해 알아보셨다.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하고 많은 선교사가 함께 복음 토론을 했지만, 아버지는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는 것만은 알았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영영 침례를 받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희망을 잃은 적이 없었고, 우리는 모두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 어느 성탄절 전야에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아버지의 발표를 듣고 우리가 처음 한 일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이다.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흥분과 놀람,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하기 힘든 엄청난 행복감이 들었다.

아버지의 발표는 성탄절 전야뿐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었다. 우리는 여전히 개인으로, 또 가족으로도 더 발전해야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전보다 더 수월할 것임을 안다.

또 앞으로 올 축복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몇 달 후면 우리는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발표는 분명히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었다. ■

아드리아나 나바 나바로, 볼리비아

아버지 발표의 가장 특별한 부분은 구주의 사진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최고의 소식을 전해 준 것이었다.



함석 골판 아래에서 맞은 성탄절

제 2차 세계 대전 때, 필리핀 마닐라에서 복무하는 동안 나는 소수의 후기 성도 군인들과 자주 만나 성찬식을 했다. 어느 날, 모임 중에 보니 한 필리핀 여성이 우리 건물 뒤쪽의 열린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폭격으로 원래 있던 문이 사라진 자리였다. 우리의 노랫소리가 그녀를 이끌었던 것일까. 우리가 눈을 감고 폐회 기도를 하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 후로도 그녀는 여러 번 우리 모임에 찾아왔고, 우리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그녀의 이름은 아니세타 파하르도였고 그녀는 기쁘게 우리의 우정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우리의 모임에 계속 참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해 배웠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우리는 아니세타와 그 가족에게 성탄절 선물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우리는 연유 통조림, 고기, 채소, 담요 두어 개, 구급 상자 등을 모았다. 구급 상자 안에는 아니세타의 병든 손자를 위한 페니실린도 들어 있었다.

성탄절 전야에 우리는 선물을 챙겨서 아니세타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딸과 손자와 함께 함석 골판을 벽돌 담에 기대어 만든 집에 살았다. 그 벽은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의 일부였다. 그들이 그토록 허술한 은신처에서 열대 지방의 우기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우리 중 하나가 망고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서 땅에 꽂았다. 우리는 쓰레기들을 주워 모아 그 가지를 장식했다.

아니세타와 가족은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우리가 가져간 선물을 보자 그들은 기쁨에 겨워 행복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오래도록 그런 음식을 본 적도 먹은 적도 없었기에 그들은 한동안 눈물 때문에 말도 할 수 없었다.

성탄절 전야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고향집과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향해 있었다. 나는 이틀 전에 받은 전보를 떠올렸다. 내가 아빠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마지막에는 구주와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다.

우리는 이 훌륭한 가족에게 그들에 대한 구주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얻었고, 평화로운 느낌이 밤공기를 따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 리는 망고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꽂았다. 아니세타와 가족은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우리의 좋은 친구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기쁜 성탄절을 보내라고 인사했다.

곧 나는 새로운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 후로 아니세타와 가족을 영영 보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후 *교회 연감*의 필리핀 부분을 펼쳤을 때 아니세타 파빌로나 파하르도가 필리핀에서 최초로 교회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기록을 읽었다.¹ 1945년의 그 성탄절에 심어진 씨앗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

어원 이 워커스, 미국 아이다호

주

1. Deseret News 1991~1992 Church Almanac, "Philippines", 157 참조; 최근 출간된 *교회 연감*에서는 파하르도 자매의 이름의 철자가 Aneleta로 되어 있음.



모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



어려운 질문에 부닥쳤을 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알 벨 존슨
교회 잡지

우 리 인생에 찾아드는
의문점들에 답하는 일이
늘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개인적인 시련들,
예를 들면 자녀의 죽음, 친구의
배신, 또는 재정적 불운은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공감 어린 지원이 필요하다. 때로
그러한 시련을 겪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은
그러한 시련에 대체 이유가 있기는 한
것인지, 혹 있다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지라도 말이다.

가장 어려운 질문 중 일부는
문화적 풍토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
또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을 때 온다.
그런 때에는 우리의 교리적, 또는
역사적 토대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아 보일지 모른다.

당연하게 여기던 진리들과 우리의 신앙을
형성한 영적인 경험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마음에 의심이 파고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기는 한 걸까?

그렇다. 답이 있다. 사실 모든 답, 모든
정답은 단 한 가지 질문 즉,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얻을 수 있다.

단순하지만 쉽지 않다

이 접근법이 너무 단순한가? 너무
쉬운가?

그렇지도 모른다. 진리가 언제나
알아보기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나
매력적으로 포장된 다른 대안들과
경쟁해야 할 때는 말이다. 종종 우리는
진리를 일부만 이해한다. 나머지 큰
부분이 아직 배워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는 채 말이다.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 온, 불완전하지만
편하게 느꼈던 지식을 버려야 한다는
불편한 전망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문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 계획에
따라 답해 주실 것임을 신뢰할 때, 답을
찾는 일은 단순해질 것이다. 늘 쉽지는
않겠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조언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혼돈의 구름
사이에서 안전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

교회의 201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통찰을 전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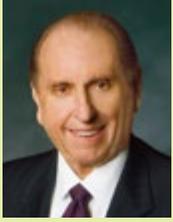
“의문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직한 질문이라는 작은
도토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면, 이해라는
커다란 참나무가 됩니다. 교회 회원
중에 중대하거나 민감한 문제로 한 번쯤
고심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 중 하나는 신앙의 씨앗을
키우고 재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과 불확실이라는 모래가 섞인 흙
속에서도 씨앗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및 친구 여러분,
부디 신앙을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혹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의심의
포로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받을 수 있는 신성한 사랑과
평안, 값진 은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될 원리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자신의 의심을
정직하게 의심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무쌍한 인간의 이해라는 모래 섞인
토양이 아니라 계시의 견고한 바위에
신앙의 닻을 내릴 것인가? 다음의 원리를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원리 1: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무한하게 더 많이 아신다.** 질문을 마주할
때, 그것이 개인적, 사회적 또는 교리적인
질문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신다는 사실에 의지할 수 있다.



원리를 옹호하는 용기

“인기 있는 의견과 타인의 인정이라는 흠어지는 모래에 뿌리를 심으면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비웃음을 경험하고, 반대와 마주칩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저버릴 수 있는 용기, 원리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 지녀야 하겠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강하고 담대하라”,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68~69쪽.

답을 찾으십시오

어려운 질문에 대해 더 폭넓은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상의 유용한 많은 자료 가운데에서도 lds.org, topics와 history.lds.org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때로는 말씀하지 않으신 주제도 있다), 우리는 그분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보다 더 명확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이사야 55:8~9).

원리 2: 하나님은 그분의 지식 일부를 나눠 주신다. 원리 1에서 얻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고 그분께서 주실 준비가 된 만큼 하나님은 그분 지식의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구하면 된다. 경전은 많은 질문에 답해 준다. 이생에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의 하나는 부지런한 연구의 대가로 경전을 통해 성신으로부터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니파이후서 28:30) 가르침을 받는 일이다.

어떤 질문은, 특히 역사와 관련된 질문은 타당한 설명이 있으므로 정직한 연구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낼수록 우리의 시야가 더 명확해진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영감을 받는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계시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그분들의 집합적인 인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임을 신뢰할 수 있다.(에베소서 4:11~15 참조)

원리 3: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성숙하고 영화롭게 된 존재로서 그분의 면전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모세서 1:39 참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가르침에는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고자 하는 가장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시편 36:7).

원리 4: 우리는 영적인 확인을 구해야 한다. 세상의 지혜에서 참으로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상충한다 해도 놀랄 필요가 없다. 신성한 계획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물리적, 정신적으로 분리된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린도전서 2:11, 14).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려 할 때, 인간의 지혜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고린도전서 2:12~13)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을 때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 그 은사로 우리는 영에게서 배울 수 있고 진리를 확인해 주는 영의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영적인 확인을 받는 것은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보다 더 확실하게 의심을 몰아내며, 이는 진지한 기도와 부지런한 연구와 주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진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원리 5: 주님의 답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고난과 의문점을 이해하려고 힘겨워하는 동안 아무 답도 받지 못한다. 온 힘을 다해 노력을 기울여도 이해할 수 없고 하늘이

닫힌 듯 보인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런 때에 인내하며 그분의 답을 기다릴 수 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즉시 주어지지 않으며, 이생 동안에 받지 못하는 답도 있을 수 있다. 영과 육이 분리되기 전에는 모든 고난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휘장이 걷히고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신앙으로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시편 37:5~7). ■

주

1.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와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3쪽.





데이비드 엘 벅
본부 청남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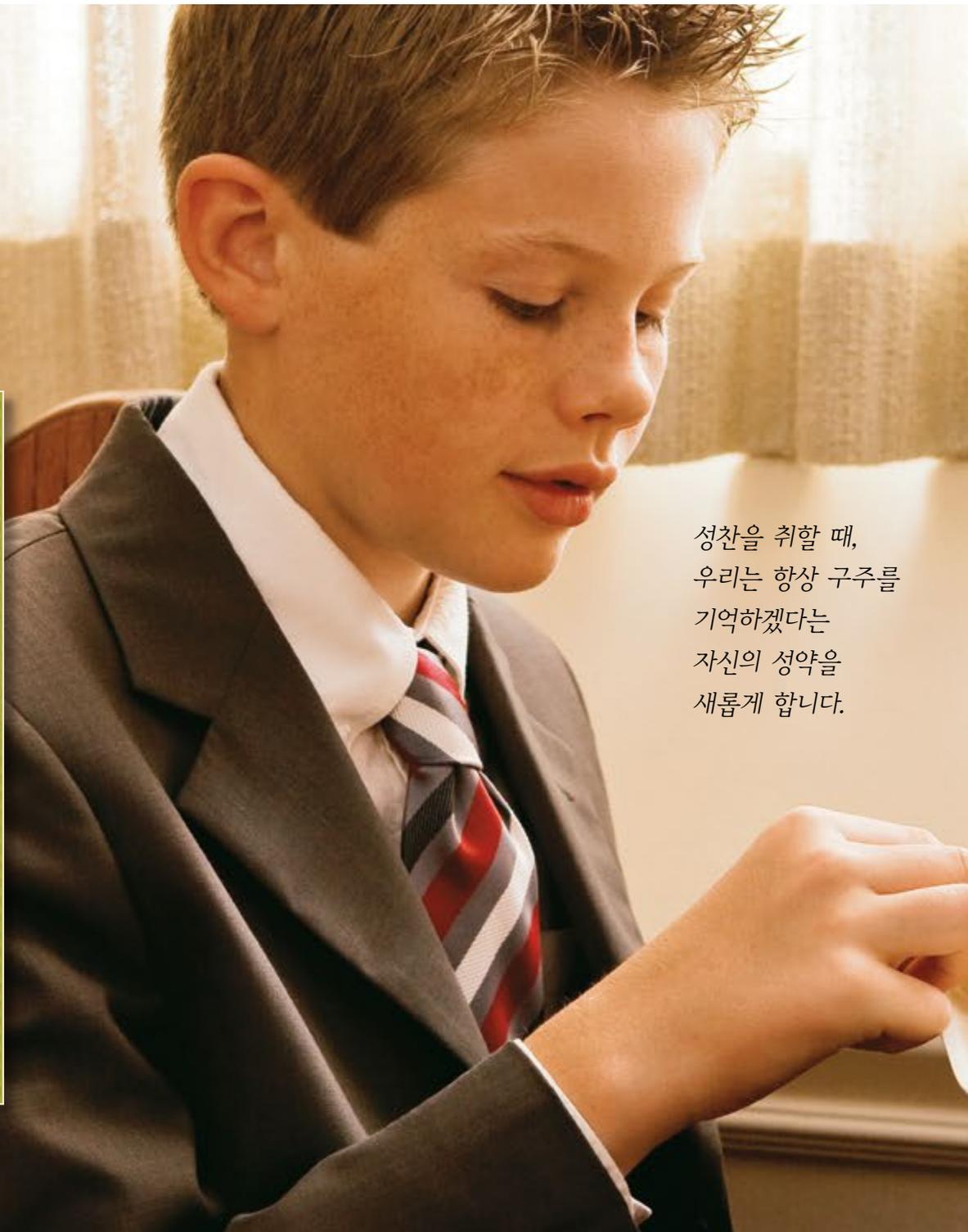
구주와 성찬

나의 성찬 경험

기역할 수 있는 나이부터 지금까지 늘 성찬식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성찬을 전달했는데, 그때 경건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돕고 있다고 성신이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도록 허락하실 만큼 저를 신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이콥 알, 12세, 미국 아이다호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항상 구주를
기억하겠다는
자신의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성찬 빵을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 성찬을 준비하거나 축복할 때, 혹은 전달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대개 자신의 성약과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생각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성찬식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 기도문의 일부가 될 만큼 심오하고도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빵을 드는 모든 사람은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고”, “항상 그를 기억하겠다고”(교리와 성약 20:77) 약속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마시며, “항상 그를 기억하겠다고”(교리와 성약 20:79) 맹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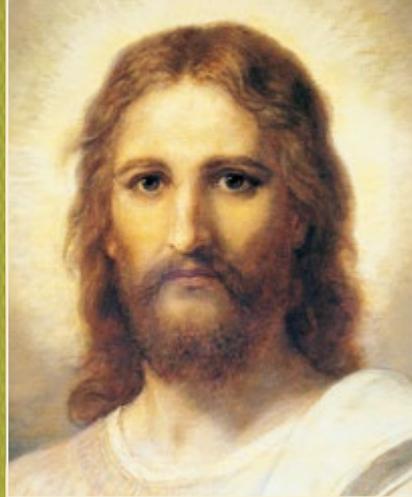
구주와 그분의 속죄 및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선택은 이 의식의 중추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하면서 아름다운 기도문에서 우리가

듣는 주된 언어는 기억인 것 같습니다. …… 이 두 기도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석할 때 우리는 항상 그를 기억해서 그의 영이 항상 우리들과 함께함을 증거하게 됩니다.”¹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월절에 구주께서는 필멸의 성역 마지막 날 밤에 사도들과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이와 같은 점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앞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먹을 떡을 떼어 주시며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9~20; 또한 마태복음 26:26~28 참조).

구주께서는 미 대륙의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신 첫 날에도 성찬식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은 그분의 몸과 피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도록 니파이인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제3니파이 18:7)라고 하셨습니다. 곧이어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게 하리라.”(제3니파이 18:7, 11)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해매게 하는 유혹, 혼란, 문제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신이



구주를 기억함

여러분과 가족이 구주를 더욱 잘 기억하기 위해 와서 나를 따르라의 단원 개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성찬을 취할 때 의미 있는 경험을 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학습하도록 한다. 이 내용은 lds.org/go/491214에서 볼 수 있다. 그 페이지에 나오는 “그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훌륭한 가정의 밤 자료로 쓰일 수 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모로나이서 10:5)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과 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충실하게 봉사하는 가운데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매주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분을 기억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 걸쳐 항상 그분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와 같은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늘 구주를 기억하겠다고 다짐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

주
1. 제프리 알 홀런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68쪽.





새로운 개종자가 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새로운 개종자가 힘을 내서 후기 성도 문화에 적응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장했다면 교회의 일상은 상당히 자연스러울 것이다. 여러 모임의 규칙이나 우리가 드나드는 건물, 교회에서 입는 복장 등에도 익숙하고 성찬식에서 말씀하는 것이나 십일조 및 금식 헌금을 내는 일, 혹은 달마다 한 번씩 하는 금식 등도 일상의 일부일 테니 말이다.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나 봉사 부름을 받아들이는 일, 순결의 법을 지키는 생활도 우리에게는 모두 익숙하다.

하지만 개종자들이 그런 것을 모두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는 어려운 적응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확실히, 복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길에서 첫 걸음이다. 하지만 간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 회원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굉장히 낯설게 보일 수 있다

내 경험을 소개하자면, 나는 열세 살 때부터 후기 성도 친구들이 있었고, 마침내 19세가 되었을 때 교회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렇게 수년간 교회 문화를 접했지만, 변화하는 것은 어려웠다. 교회의 문화와 관습이 어찌나 낯설었던지 좀 괴상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다.

나는 여러분이 아는, 또는 여러분이 알게 될 이 교회와 여러 면에서 무척 다른 교회를 다니며 자랐다. 그곳에서는 성직자들과 성가대가 고등학교 졸업식 복장과 유사한 제복을 입었다. 성찬식에 해당하는 그들의 예배에서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시간은 성직자 혼자서 모두 담당했다. 모든 사람은 일요일마다 일제히 주기도문을 암송했으며, 언제나 찬송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불렀다. 아기들에게는 머리 위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었고 확인 의식은 열네 살 정도가 되면 받을 수 있었다.



또 성찬은 물 대신 포도주스를 사용했다. 주일학교 시간에는 고등학생들이 성인들과 같은 반에 참석하여 현 사회 쟁점을 토론했다.

내가 다니던 교회는 건물 자체도 후기 성도들의 건물들과는 달랐다. 그 교회는 유럽의 기독교 교회 건축 양식에 따라 지어졌는데, 높게 치솟은 지붕과 커다란 스테인드글라스 창이 있었다. 성가대 자리에는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커다랗고 아름다운 종탑이 우뚝 솟아 있다. 나는 예배 뒤에 그 종을 치는 것을 좋아했다. 종은 받침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어린아이의 몸이 들릴 정도로 무거웠다.

관습과 사회적 신조도 달랐다. 우리는 술이나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고 배웠다. 십 대 때 이성친구를 사귀어도 무방했다. 사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혼전 성관계도 가능한 것이라고 배웠다. 간증을 얻게 된 경험 같은 것은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처음으로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했을 때 얼마나 놀라웠던지! 얼마나 이상해 보였는지 모른다.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일어서서 자신의 믿음을 발표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나 전세의 삶과 같은 새로운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와 생활 방식, 목표의 변화를

침례 뒤 첫 6개월은 굉장히 힘들었다.
나는 대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모든 게 너무나도 생소했다.

의미했다. 그와 같은 차이를 해결하기까지 나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다.

침례 뒤 첫 6개월은 굉장히 힘들었다. 나는 대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모든 게 너무나도 생소했고, 특히 나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었다. 나의 과거와 멀어지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낄 뿐 아니라 몇몇 교리적인 문제로도 여전히 힘겨운 씨름을 해야 했다.

다행히도 교회의 친구들은 인내하고, 친절히 대해 주며, 한결 같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친구들은 나를 여러 활동 모임에 데려갔으며, 가정의 밤이나 저녁 식사 시간에 초대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해 주었다. 친구들은 내가 교회에 적응하는 것뿐 아니라 간증이 흔들릴 때 힘을 내고 계속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다.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제, 어떻게 교회에 적응했고, 또 그러면서 어떤 것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두 젊은이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 보면서, 새로운 개종자나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 하는 누군가가 힘을 내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응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침례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면서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회화반에서 선교사들을 만나 토론을 하고 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침례를 받겠다는 내 말에 굉장히 노여워하셨다. 부모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으셨고, 내가 혹시 위험한 곳에 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셨다. 부모님은 교회가 학업에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규칙 때문에 내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2년 반 동안이나 나는 침례 허락을 받지 못했다.



나는 혼자서 기도하고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며
신앙과 간증을 쌓았다.

개종자가 마주치는 것은?

여기 새로운 개종자가 직면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들이 그와 같은 문제를 감당할 때 어떻게 우리의 우정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1. 새로운 교리를 이해하려 애써야 한다.
2. 미디어나 음악, 영화나 도서를 선택해야 한다.
3. 경전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4. 비회원인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이는 거부감에 대처해야 한다.
5. 복장을 다르게 해야 한다.
6. 시간을 할애하여 교회와 세미나리에 참석해야 한다.
7. 예배 모임에서 새로운 관습과 규칙을 배워야 한다.
8. 사고 방식과 언어, 버릇을 바꿔야 한다.
9. 후기 성도 사회의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10. 복음이나 배도, 회복과 같은 후기 성도 특유의 용어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첫 발을 떼면서부터 시험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침례받을 때를 기다리면서 나는 계속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신앙과 힘을 간구했다. 나는 교회에 참석하거나 선교사나 회원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다. 나는 혼자서 기도하고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며 신앙과 간증을 쌓았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이나 흥미로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로마로 오고 나서, 부모님이 엄청나게 화나셨을 때 감독님은 진실한 친구로서 내 곁을 지켜 주셨다. 감독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마침내 침례를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와드 회원들이 와서 지지해 주었다. 나는 합창단 활동을 하며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친구들의 우정과 친절함으로 나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신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최근 개종자와 구도자들은 우리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타비오 카루소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현재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나와는 맞지 않는 곳이라는 느낌

나는 열세 살 때 교회에 가입했다. 나는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었지만, 내가 교회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 모두는 경전 이야기와 찬송가를 알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가정의 밤 공과나 초등학교 활동에 대한 추억이 있었지만 나는 그중 어느 것도 없었다.

게다가 영화나 정치, 혹은 어떤 경전 구절에 대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관하여 모두가 똑같은 관심과 견해를 지닌

**‘여러분도 나도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린 서로
너무나 달라요.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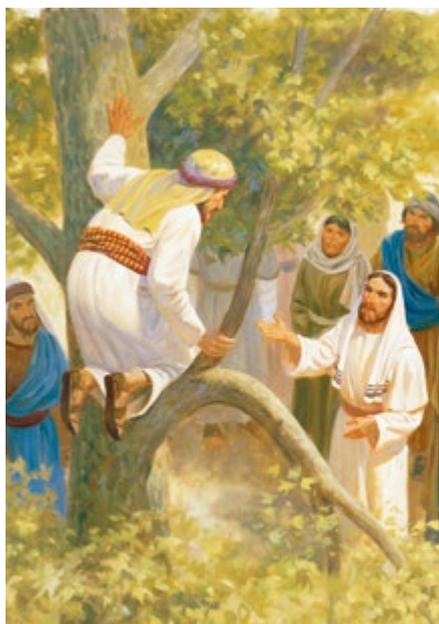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때로 나는 그들과 완전히 정반대의 의견이 있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여러분도 나도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린 서로 너무나 달라요.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몇 년 동안이나 그와 같은 생각으로 힘겨웠다. 나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 읽어 보았다. 그는 세리였던 까닭에 인기가 없었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예수께서 삭개오가 사는 고장을 지나실 때 그는 군중 사이에서 그분을 뵈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무에 올라간 행동으로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었다. 그것으로 그는 개인적으로 구주와 함께 아주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경전을 읽는 동안 나는 이방인처럼 느끼는 그 기분이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모두를 포용하시며 너그러우시다. 주님은 다르게 보이는 사람 즉, 사람들의 판단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셨다.

그 깨달음으로 그런 기분을 완전히 떨쳐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기분은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내 걸모습이나 사람들이 나를 보는 방식, 혹은 내가 열정을 보이는 것들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 등으로 내가 사람들과 달라도, 그것이 곧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교회에 우리 모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서로 다른 재능과 힘,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일레인 비커스는 미국 유타에 산다.



예수께서 삭개오가 사는 고장을 지나가실 때 그는 군중 너머로 그분을 뵈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다.

대화에 참여하세요

생각해 볼 점

- 일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변화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누군가 교회로 돌아오거나 활동적으로 남아 있도록 하는 데 우리의 우정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 개종자들이 통상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 목록을 적어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목표를 정해 본다.
- 여러분의 반이나 정원회 활동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근 개종자나 저활동 친구를 초대한다.
- 교회와 집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교회 표준을 따른다고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

회 표준을 따른다고 놀림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대화하십시오. 영의 속삭임이 있다면, 왜 그러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준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신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여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하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 성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 혹은 전임 선교사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응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 사람들과 논쟁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님]”(제3니파이 11:29)을 기억하십시오.

어떨 때는 압도되어 교회의 표준을 더는 따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강해지십시오. 강하게 설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평화를 가져오는 축복을 받게 되며, 그에 더하여 친구의 삶까지도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범을 보여서 그들이 의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구주의 모범을 통해 힘을 찾으십시오. 구주께서는 진리를 수호하시다 멸시를 당하셨습니다.(이사야 53장 참조) 그분은 여러분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속죄하셨으며, 여러분과 같은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주님의 생애에 대해 더 연구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쇠막대를 붙잡으십시오
학교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릴 때, 리하이와 경험했던 크고 넓은 건물에 대한 시현을

떠올렸습니다. “또 그 건물은 사람들, 곧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저들의 옷차림은 심히 훌륭하였고, 저들은 열매에 이르러서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태도였느니라.”(니파이전서 8:27) 저는 리하이처럼 될 것입니다. 저는 영생으로 이끌어 주는 이 쇠막대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피에르 에스, 18세, 아이티



복음을 나누세요

친구와 저는 개인 발전 기록부의 고결성 가치관 활동을 완수하기 위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저희를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경전을 집에 두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학교에서 몰몬경을 읽었고, 어느덧 우리를 향한 조롱은 사그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개인 발전 기록부와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에게 경전 합본과 소책자를 주었고, 그 친구와 복음에 관한 대화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남동생도 복음에 관심을 보였고 이제 그 두 명 모두 몰몬경을 읽고 있습니다.

김벌리 에이, 16세, 브라질



모범이 되십시오

저희 학교에도 복음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던 정중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범을 알기에 어쩌면 마음을 열어 복음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켈시 피, 14세, 미국 플로리다

간증을 나누세요

표준대로 살아갈 때 따르는 축복들을 알면, 비웃음 앞에서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표준에 대해 알려 주고, 그러한 삶에 대한 간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복음에 대한 간증으로 우리의 친구들은 배움을 얻고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에이, 16세, 가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학교 행사 때 반 친구들과 제 친구들까지도 저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옷을 입으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귀여워 보일 거야. 색다르게 변신하는 거지.” 때로 그 친구들은 제가 세상과 어울리려면 제 신앙을 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거절합니다. 저는 세상과 다르게, 참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내가 되는 것임을 압니다. 그들이 제 본연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재지 시, 19세, 필리핀



선교사가 되세요

복음 표준대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저도 학교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간증을 강화하고 선교 사업에 동참할 적절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높은 표준을 계속 지키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실천한 저 자신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이람 디, 18세, 브라질



여러분의 간증에 영양분을 주세요

“진리와 의를 확고히 지키려는 용기를 지니[십시오.]

오늘날의 사회적 흐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과 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것을 수호하라는 요구를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지속적인 자양분을 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용기를 가지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6쪽.

다음 질문

“저는 장미반 회장으로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원할 경우) 고화질 사진을 2015년 1월 15일까지 liahona.lds.org에서 '작품 제출을 클릭하여 제출하거나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3쪽의 주소 참조)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함)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올 필요가 없었다

그 성탄절 아침 과테말라의 한 병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와서 노래를 해 달라며 천사들을 부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노래를 불렀다.

제니언 젠슨 닐슨

불 놀이와 폭죽, 화려한 성탄의 장면들, 타말리(으깬 옥수수와 다진 고기 등을 옥수수 껍질에 싸서 찐 음식-웁킨이)가 곁들여진 성찬, 그것이 바로 과테말라의 성탄절이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며 나는 내 고향 미국과는 다른 그곳의 풍습을 배우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향수병에 시달리며 나에게 이번 성탄절은 초라한 시간이 될 뿐일 거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동반자인 아나야 자매님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면 즐거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아나야 자매님은 아침에 병원에 가서 노래를 불러 주며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고, 곧이어 우리는 다른 선교사들도 동참하도록 초대했다.

병원 입구에 이르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먼지투성이 발에 샌들을 신고서 색이 바랜 옷차림을 한 그들은 표정이 어두웠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다렸다. 마침내 건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은 우리는 녹색 페인트가 벗겨진 좁은 복도의 시멘트 바닥을 따라 걸었다. 나는 약품과 질병의 냄새에 압도되었다.

가려 주는 것도 거의 없이 환기도 안 되는 커다란 병실의 침침한 등불 아래 여러 침상에 누운 환자들이 보였다. 붓대를 동여매고, 수액 정맥 주사를 맞거나 산소호흡기를 달고 겨우 숨을 쉬는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 시름시름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 대부분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문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나야 자매님은 그렇지 않았다. 자매님은 각 침대로 다가가

아픈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안부를 묻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라고 축원해 주었다. 그렇게 자매님의 용감한 모습에 우리도 이곳에 온 이유를 깨달았다. 우리는 성탄절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했지만 노래를 할수록 자신감이 더 커졌다. 몇몇 환자는 빙그레 웃었고, 또 몇몇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누워 있는 듯 보였고, 또 몇몇은 우리를 따라서 콧노래를 불렀다.

아나야 자매님은 손에 찬송가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붓대를 휘감고 누워 있는 한 여성에게 다가갔다. 그 환자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으며, 내 동반자는 사랑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환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여러분은 천사예요. 여러분은 천사예요."

그때 아나야 자매님이 한 대답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아네요, 저희 천사가 아니예요. 당신이 듣고 계신 것은 후기 성도의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한 천사가 그 소식을 알리고,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누가복음 2:8~14 참조) 나는 성탄절 때마다 그 천사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아나야 자매님도 생각한다. 자매님이 어떻게 우리를 북돋아서 병원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해 주었고, 우리가 기쁨을 전파하며 기쁨을 찾도록 도와주었는지를 기억한다. 그 여성 환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자매님의 손길을 기억한다.

아울러 이웃을 섬기기 위해 천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후기 성도로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방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각자 예수님이 머무르실 방을 정하는 여관 주인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희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 “너희 마음을 굳게 정하라”,
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66쪽.



머빈 비 아놀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나는 어디 있습니까?

영적 은사와 재능을 찾아내고 계발하는 법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바라시는 존재가 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적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삶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많은 질문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취했을 때 받은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창세기 3:8~9; 강조체 추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따라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어디에 숨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다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물으려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으로 아담과 이브는 어쩌면

그들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영생으로 이어지는 성약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존재가 되고자 분투할 때, 우리가 얻어야 할 또 다른 은사와 재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일시적인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영으로서 하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숙하게 양육되었습니다.”¹ 복음 원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누구이며 이곳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교훈을 배우고, 재능과 개성을 통해 가장 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태어날 때와 장소를 택하셨다.”²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 재능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느 곳에 살며 어떤 환경에 처하여 어떠한 도전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곧,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실례는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뿔불과 엉덩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땅을 갈며 스스로 일하여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아가 일했습니다.(모세서 5:1 참조) 그들의 아들 가인이 극악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아담과 이브는 계속 의롭게 살며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벤 삼촌의 발견

저에게는 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계속하여 계발하고 증진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적 은사와 재능이 발전하고 증진할 수 있는지를



제게 알려 준 그분의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벤 삼촌은 동 광산에서 일하시던 어느 날, 철로 옆에 나뒹구는 오래되고 구부러진 금속 조각을 보셨습니다. 삼촌은 그것을 가져도 좋은지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벤, 그건 그냥 쓸모없는 고철이요. 그런 걸 줍다니, 시간 낭비일 뿐이요.”

벤 삼촌은 싱긋 웃으며 응했습니다. “제 눈에는 고철덩이가 아니라 더 값진 물건으로 보이는걸요.”

상사의 허락을 받은 삼촌은 금속 조각을 집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삼촌은 자신의 작업장에서 금속이 빨갛게 달궈질 때까지 열을 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곧게 펴질 때까지 모양을 잡고 구부렸습니다.

금속이 식자 삼촌은 그 위에다 칼 모양의 커다란 무늬를 새겼습니다. 삼촌은 뜨거운 용접 버너로 금속을 잘라 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벤 삼촌은 거친 가장자리를 떼어 내고 계속해서 그 오래된 금속덩이를 자르고 문지르며 갈고 닦았습니다.

날마다 삼촌은 상사가 쓸모없는 고철이라 불렀던 그 금속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칼은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여 아름답게 빛나는 걸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손잡이뿐이었습니다. 벤 삼촌은 숲으로 가서 큰 수수슴 뿔을 찾았습니다.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온 삼촌은 뿔을 씻어서 자르고 문질렀습니다. 일을 마쳤을 때, 부드럽고 아름다운 칼자루가 생겨났습니다. 삼촌은 조심스레 칼자루를 칼에 붙였습니다. 넓고 녹슬고 비뚤어졌었던 고철덩이는 아름다운 칼로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어떤 은사를 알아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어 본다. 다른 은사도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한다.
-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때때로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우리의 은사를 인식하기도 한다.
- 새 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자신의 재능 또는 영적 은사를 발견한다.
-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면,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분야에 잠재력이 있는지 알기 위해 축복문을 잘 살펴본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사가 있습니까?

“항상 분명하고 값지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나,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은사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사 중에는 여러분이 받은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질문하는 은사, 귀 기울이는 은사,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고 활용하는 은사, 울 수 있는 은사, 다툼을 피하는
은사, 동의하는 은사, 중언부언을 피하는 은사, 의로운
것을 구하는 은사, 판단하지 않는 은사,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은사, 제자가 되는 은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은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사, 기도드리는 은사, 강한
간증을 전하는 은사, 성신을 받는 은사 등이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 장로, “여러 가지
은사”,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22쪽.

다시 태어나 몇 가지 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고철덩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주조 작업과 정련 작업
등의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찾아내어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그와 같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가능성 중 상당 부분은 겉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찾아내어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벤 삼촌은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되”(교리와 성약 46:8)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달란트를 늘리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달란트를 얻게 하[여], 참으로 백 배나 얻게 하[라]”(교리와



성약 82:18)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다음 절에 설명되어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웃의 이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순전한 눈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2:19) 봉사는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틀을 잡아 줍니다.

재능 찾기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시련이 어떻게 우리를 형성하는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시련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런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면 그 시련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더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신다는 증거입니다.(잠언 3:11~12 참조) 따라서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영원한 유익을 위해 스스로를 연단할 수 있도록 성장과 [두 가지 중요한 재능인] 이해력과 동정심을 자극하는 경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위치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은 대개 곤경과 고통을 수반합니다.”³

재능 개발

재능을 개발하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스코트 장로님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놀드 자매님, 그림을 한번 배워 보지 그래요.”

제 아내는 평생 그림을 그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권유를 직접 실행해 봐야 했습니다. 아내는 얼마간의 교육을 받고서 매일 그림을 그렸으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법을 깨우쳤습니다. 이제 제 사무실에는 아름다운 강가의 풍경이 담긴 아내의 풍경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능을 쌓으려면 실행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잘하였도다. 네 부지런함으로 말미암아 네 은사와 달란트가 더욱 많을지어다”(마태복음 25:14~30 참조).

영적인 은사

제 아내는 그림 그리는 재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많은 은사가 있고 또 각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가지 은사가 주어짐이니라.”(교리와 성약 46:11)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은사를 받아들이고 재능을 증대하며 남들과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가령 교리와 성약 46편에서 보듯이) 경전에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은사가 열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은사와 재능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물문경에서 제3니파이 11장 26절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여러 은사와 재능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3니파이 1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백성에 대해 읽습니다.

“다시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듣고 이를 듣고자 그들의 귀를 여니, 그들의 눈은 그 소리를 향하였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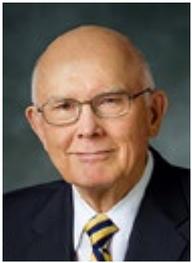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깨닫고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눈을 다시 드니, 보라, 그들이 본즉 한 사람[예수 그리스도]이 하늘로부터 하강하는데”(5절, 8절).

잘 듣고 잘 보는 것은 영적 은사의 두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러한 은사는 적극적으로 구하고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고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벤 삼촌처럼 해 봅시다. 영적 은사와 재능을 추구하며, 그런 것을 사용하여 우리 이웃을 축복할 때,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사와 재능을 많이 가지고 계심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에는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일하거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Bible Dictionary,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은사와 재능을 찾아내고 노력하여 개발하고, 다른 은사들도 받을 수 있기를 겸손히 기원합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336쪽.
2. 복음 원리(2009), 10쪽; 강조체 추가.
3. 리차드 지 스코트, “주님을 신뢰함”,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16쪽; 강조체 추가.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재림을 준비하는 법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엘마서 34:32)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림이 내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아닌 죽음을 통해 혹은 예기치 않던 재림을 통해 우리가 내일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중단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용서를 더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하게 될까요?

그때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면, 왜 지금 하지 않는 것입니까? 평화를 구할 수 있을 때 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특정 지역에서나 발생하고 부스럼처럼

감추어지던 악이 지금은 합법화되고 깃발처럼 드높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명의 뿌리와 방어선이 위태롭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종교적인 유산을 거부합니다. 생활과 가족의 책임은 개인적인 만족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것처럼 버림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형성해 주는 영화와 잡지 그리고 텔레비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약탈하는 짐승으로 묘사하거나 기껏해야 개인적인 쾌락보다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이색적인 창조물로 묘사하는 이야기나 영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흥밋거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훌륭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이든” 훌륭하지 않은 것과 개인적인 기분에 좌우되는 가치 없는 물건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우리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외설물과 신체에 구멍을 뚫는 일과 이기적인 쾌락의 추구하고 부정직한 행동과 단정하지 않은 복장과 저속한 언어 및 퇴폐적인 성적 탐닉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행동을 금하신 일, 즉 그분이 보시기에 슬픈 일입니다.

영생을 위한 우리의 개인적인 준비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늘 성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침례의 물가에서, 성신권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맺은 거룩한 약속들을 포함하여, 우리는 성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키지 않을 약속만 하는 사람들이며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입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에 따릅니까? “너희는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 이는 보라, 그 날이 속히 임함이니라.”(교리와 성약 87:8)

우리는 많은 문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고린도후서 4:8~9 참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신앙이 있으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충실하라. 항상 기도하라. 너희 등잔을 손질하여 타고 있게 하며 너희에게 기름이 있게 하여 신랑이 올 때에 준비가 되어 있게 할지니-

이는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올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33:17~18) ■

2004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신화 출처: 제임스 해리 앤더슨

나의 성탄절 선물

올해는 구주께 무엇을 드릴까?

더스틴 와드

나는 9학년 세미나리에서 주로 뒷줄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는 친구와 장난치며 이야기할 수 있었다. 나는 그저 내 일과표에 빈 시간이 있어 세미나리에 등록을 했을 뿐이었다. 내가 사는 곳에서는 학교 수업 시간에 세미나리를 할 수 있었다. 지도 선생님은 내가 후기 성도이니 세미나리에 등록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 주셨다. 나는 세미나리 선생님의 성함을 알았다. 공과에서 내가 배운 건 그것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날, 친구가 결석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함께 장난칠 사람이 없었다. 이제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나는 딱 하나 남은 선택을 하기로 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선생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 선생님의 말씀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지만 내가 그 시간에 몰입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튿날 친구가 다시 나왔지만 나는 장난을 치지 않고 공과를 경청하며 빠져들었다.

마침내 나는 교실 뒤쪽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집중하기에 좋은 앞줄에 자리를 잡았다. 간증을 나누는 학생들이나 교과 내용에 특별한 흥미도 느끼지 못하면서 지나가는 수업은 한 번도 없었다.

어찌나 즐겁게 공부했는지 이듬해 나는 다시 세미나리에 등록했다. 나는 여덟 살에 침례를 받았었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었다. 하지만 성탄절 휴가를 바로 앞둔 12월 어느 날 뭔가 변화가 찾아왔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해 그리스도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에 대해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 달라고 요청하셨다.

나는 '누가 그렇게 하겠어?'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교실 앞으로 나섰다.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발표하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재깍재깍 시간이 흘렀다. 여태껏 나가지 않은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캄캄했다. 곧이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올해 그리스도의 생일에 저는 교회에 다시 나가려 합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구주께 드리는 선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묘하게도 선물을 받은 쪽은 나였다. 교회로 돌아옴으로써 내 인생이 바뀌었다. 떠들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성신이 내 마음에 와 닿도록 했던 바로 그날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성신은 여전히 나에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나는 멈추어 성신의 말씀을 듣고서 따른다. 나는 단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어요



노도카 티



조쉬 더블유



그레이스 에스



브라이언 알



아이올라와 에벌린 브이



존 시

곧 초등학교에서 청남이나 청녀로 올라가세요?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변화를 겪는 일곱 명의 열두 살 꼬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 보세요.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미키 시모미야, 일본, 도쿄

여러분은 곧 열두 살이 됩니다. 인생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초등학교에서 청남이나 청녀로 곧 올라갑니다. 그것은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봉사하며, 성전에 갈 준비를 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어린이들은 이 과정이 무척 멋진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둘이 함께

프랑스에 사는 아이올라는 열두 살의 꿀벌반 반원입니다. 한 달 있으면 열세 살이 되는 아이올라의 언니 에벌린도 꿀벌반입니다. 아이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청녀로 올라갈 때 언니가 옆에서 도와줘서 정말 좋아요.”

개인 발전 기록부는 두 자매가 아주 좋아하는 활동인데, 어떤 목표를 읽었을 때는 까르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악기 배우기”였습니다.

“악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주해 온걸요.” 에벌린이 말합니다. 두 자매가 이 목표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음악으로 이를 수 있는 또 다른 목표를 제안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봉사였습니다.

아이올라와 에벌린은 이제 성찬식과 재능 발표회에서 연주하는 것뿐 아니라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한 연주회와 선교사 합창 반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벌린은 개인 발전 기록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는 정말 멋져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새로운 목표에도 도전하죠.”

물어보세요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열두 살의 브라이언 알은 처음으로 성찬 전달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실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와드에 있는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정말 멋졌어요. 어디에서 있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 주었죠.”

형들이 알려 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경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건의 의미에 대해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을 전달하는 동안 구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회원들도 구주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의무를 이해하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까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돼요. 초등학교에서 청남으로 올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요

일본 오키나와에 사는 노도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고문이 처음으로 스테이크 청녀 캠프에 가자고 하셨을 때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기로 했죠. 기도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래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었어요. 청녀들은 정말 상냥하고 친절했어요. 두려움이 금세 사라졌죠. 또 청녀 캠프에서 정수 방법과 매듭 매기, 봉대 만들기, 인공호흡법, 식용 식물 찾기도 배웠어요.”

환영받는 느낌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그레이스는 처음 청녀회에 참석할 날을 떠올립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청녀들이 떠들썩하게 축하해 줬어요. 그 후로도 계속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요. 옆에 앉으라고 말하는 등 작은 일이었지만,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느낌이었어요.”

청녀 고문도 자신을 환영해 주었다고 그레이스는 말합니다. “자매님은 청녀였을 때 했던 일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개인 발전 기록부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온 표준을 한 명 한 명에게 읽어 주시면서, 우리가 이해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진: 리저드 앤 롱니, 랜들 알 리플링거

탐구 학습

청남 청녀를 위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려면, youth.lds.org에 가 보세요.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기

미국 유타에 사는 조쉬는 집사로 새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한 공과를 부탁받았을 때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공과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관한 성구를 찾았어요. 어부들은 배 한쪽 편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그때 구주께서 다른 편에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누가복음 5:5~11 및 요한복음 21:6~11 참조) 공과를 하면서, 이 내용을 함께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혼자 힘으로만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청남 활동에서 중요하다고 조쉬는 말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많은 걸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그런데 청남이 되어서는 배우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나누고 있어요. 배우는 것을 더 많이 실천한다는 의미예요.” 한번은 신권회 공과를 들은 후, 조쉬는 오랫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 한 명을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이 일요일에 일하셔서, 그 가족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자랑 같이 교회에 가자고 말했어요.”

청남 청녀의 목적을 배워 가고 있는 조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남 청녀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구주를 닮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부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침례와 확인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성전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영생으로 이끄는 길을 따르는 것임을 조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쉬는 말합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함께 달성함

12 세인 존은 자주 아버지와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전에 한번은 야영 때 사용할 담요에 형견을 덧대어 기우기도 했습니다. 그 형견들은 모두 존의 가족이 살고 있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개최한 다양한 캠프와 활동에 참여하면서 얻은 것들입니다.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없는 교회 활동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존이 열두 살이 되었을 때, 두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자를 함께 펼쳐 보았고, 이내 집사 편에서 “교리 이해”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신권 열쇠와 권능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 덕분에 집사 임무 요건 중 한 가지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아울러 존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때, 아버지와 함께하세요. 저도 아버지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특별한 증인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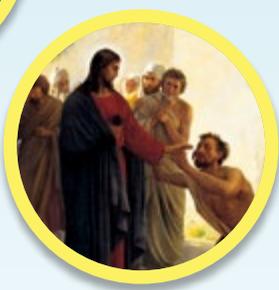


맞습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구속주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지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기적은 실제였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실재하므로, 회개한 죄인은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이 존재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나라의 세부, 델 파슨: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세부, 칼 하인리히 블로호: 승전, 해리 엔더슨: 산화, 종려 나무로 불판받은 여인의 세부, 해리 엔더슨: 꽃 사진, ISALORRY/ISTOCK/THINKSTOCK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11~114쪽에서 발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한다.

에린 샌더슨, 진 빙엄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온 세상에 보낼 놀라운 선물에 관하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장차 지상에 오셔서 우리 구주가 되실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 주실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몹시 기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천사들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목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목자들은 곧장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 뵙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미대륙에서는 해가 진 후에도 밤새도록 어둠이 내리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니파이 백성들은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대륙 백성들도 몹시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을 선물로 보내 주신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탄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구주의



경전

- 요한복음 14:6

모범을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따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구주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나타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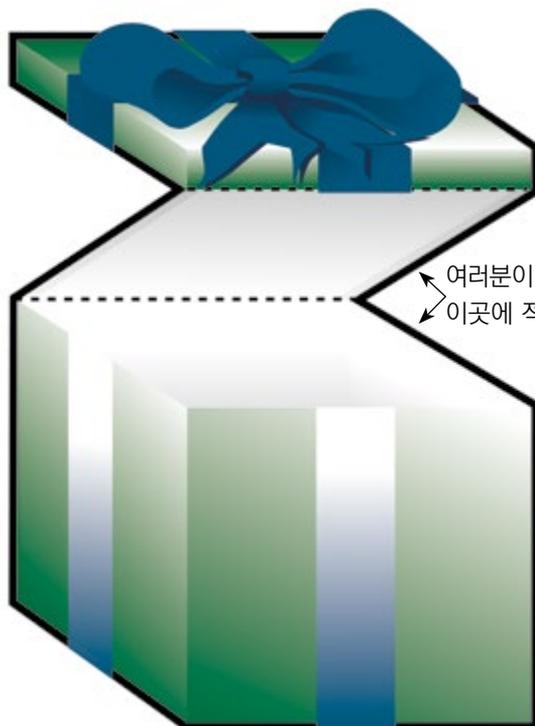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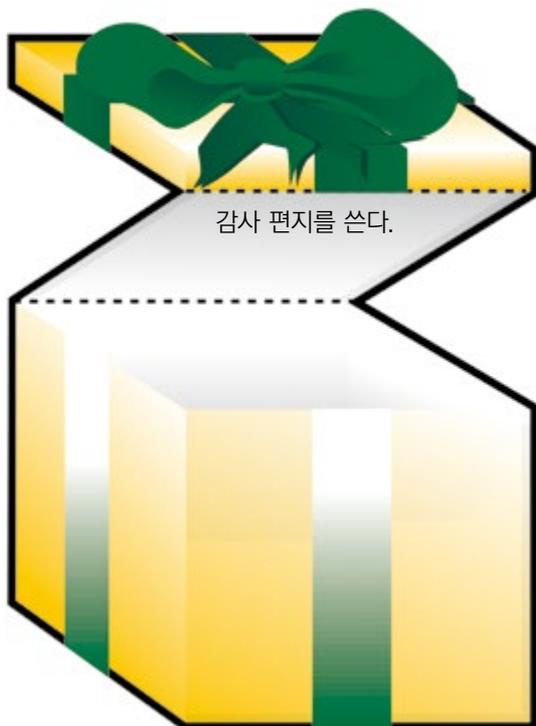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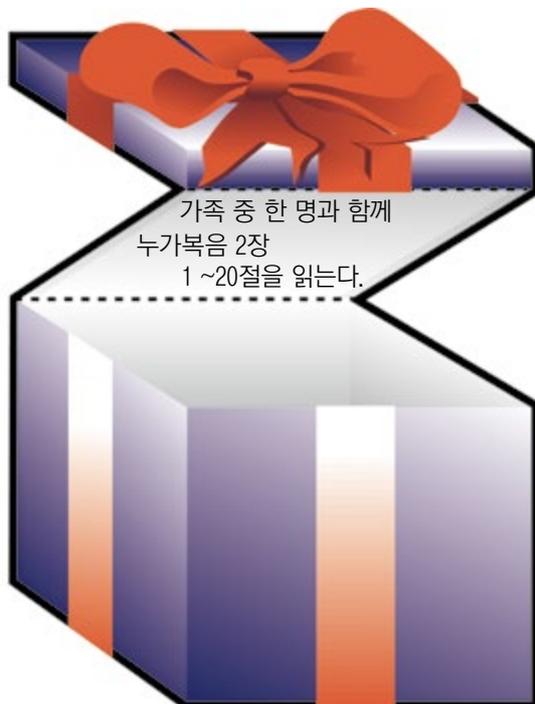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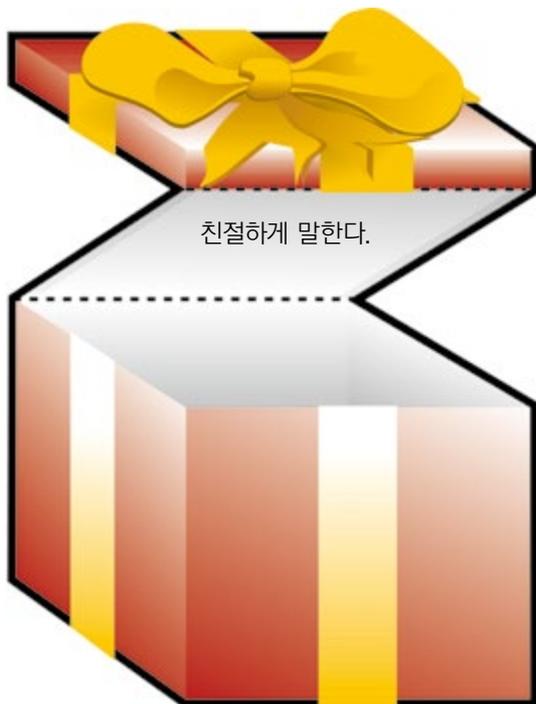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에 산다.

가족과 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보여 주셨던 많은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하고 따르는 한 가지 방법으로, 12월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일 몇 가지 방법을 가족들과 함께 선택해 보세요.

사랑의 선물

실선을 따라 선물 상자를 오리세요. 빈 상자에 여러분이 선물로 드리고 싶은 일들을 적어 보세요. 점선을 접은 다음, 뚜껑이 닫히도록 테이프로 붙이세요. 각 선물의 윗부분에 구멍을 뚫어 끈을 달아 보세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곳에 선물을 걸어 두세요. 며칠마다 "선물"을 열고 안에 적혀 있는 대로 실천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이런 선물은 연중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의 그림이 더 필요하다면 liahona.lds.org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브렌트 에이치 닐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안시



“또 이제 나는 너희가 겸손하며,
유순하고 온화하며”(앨마서 7:23)

제 형제자매들과 저는 항상 말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아홉 살인가 열 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검정 말 한 마리를
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게
안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말이 생겨서 정말 신이 났지만, 안시는
아직 사람을 태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을 길들이는 힘든 일을
감당하기엔 저희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에 대해 잘 아시는
친구분에게 안시의 훈련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희는 자주 안시를 보러 풀밭으로
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시를 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안시는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시는 고집이
너무 세었습니다. 우리는 안시를 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분은 시가행진
때 안시를 타 보기로 하셨습니다. 사람을
등에 태우고 길을 따라 가던 안시는 이내
펄쩍 뛰어 등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고
시내 한복판으로 내달렸습니다.
난폭하게 질주하던 안시는 결국 소방
호수관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습니다.
안시를 뒤쫓던 저는 길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말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는 안시를
좋아했습니다. 안시가 조련사에게
순종했다라면,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시는 주인의 말을 듣지도,
따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를 흘리며 길거리에 쓰러져 있게 된
것입니다.

안시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주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오는 축복에 대해 배웠습니다. 친절하고
온유하며 겸손할 때, 우리는 구주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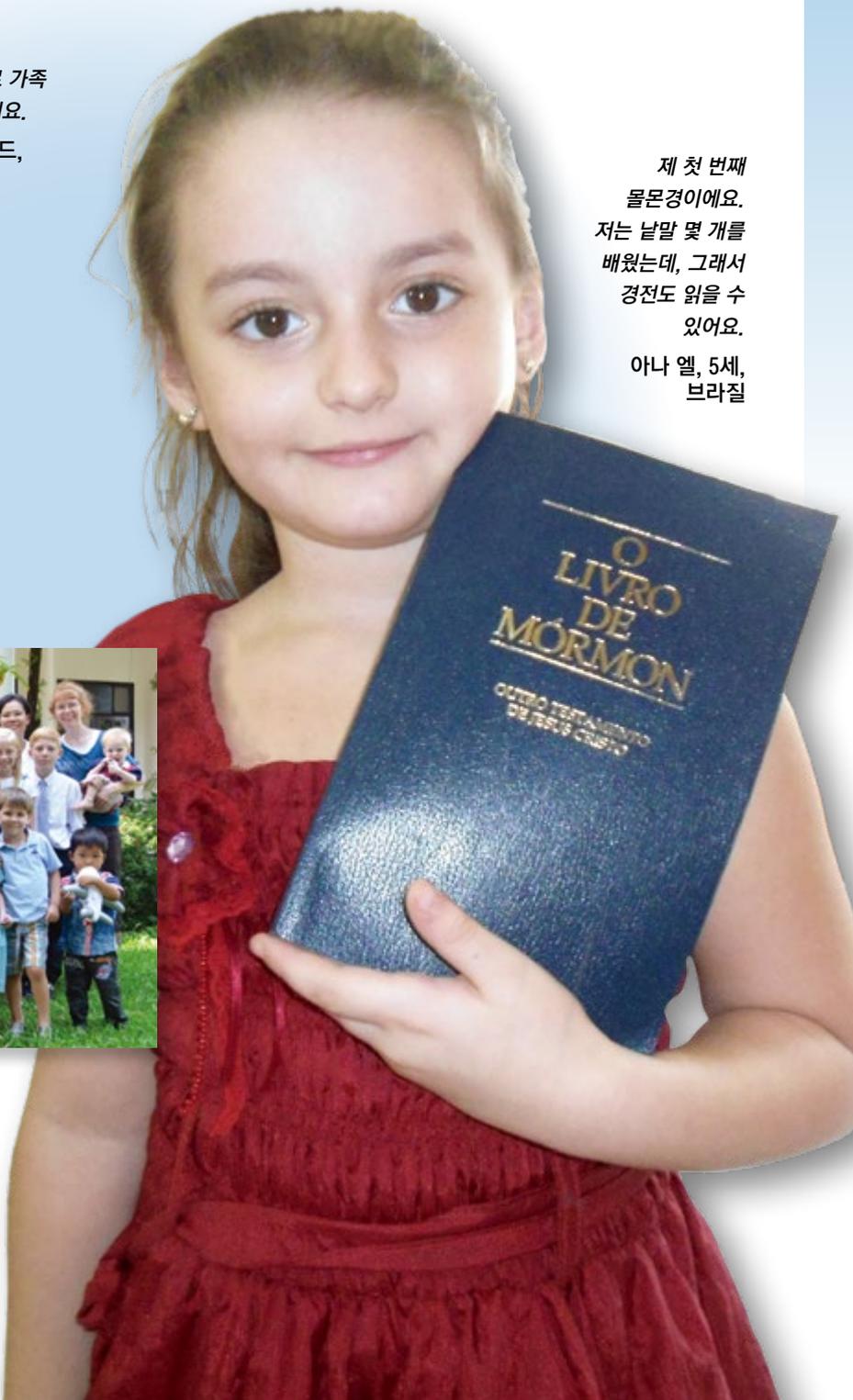
우리들 이야기

작년에 저희 가족은 와드 회원들과 함께
4일 동안 스위스에 있는 성전에 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전에
저희 가족은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사리아 씨, 10세, 이탈리아



초등학교 활동으로 가족
나무를 만들었어요.
라스 헤라스 워드,
아르헨티나

제 첫 번째
물몬경이에요.
저는 낱말 몇 개를
배웠는데, 그래서
경전도 읽을 수
있어요.
아나 엘, 5세,
브라질



저희는 작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성찬식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연습을 할 때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노래를 부르고, 각자 맡은
말씀을 했습니다.
비엔티안 지부, 라오스

저는 스웨덴에 사는 미나입니다

Hallå,
Vänner!*

* 스웨덴어로 "안녕,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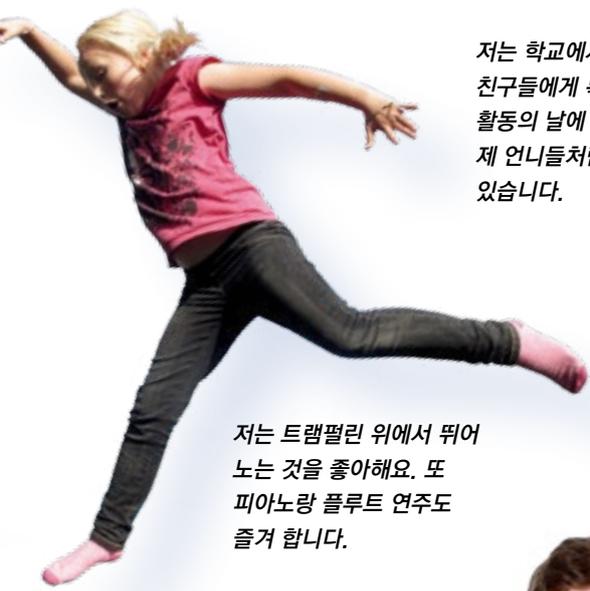
애미 제인 레빗의
인터뷰 노트에서

저희 집 텃밭에서
딱 커다란
호박이랍니다.

학 교에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미나와 가족들은 스웨덴 남부의 시골에 삽니다. 이 가족이 사는 집은 오래 전에 학교 건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미나는 집에 많은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방이 있다는 게 제일 큰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12월이 오면, 미나의 가족은 이웃과 친구, 친척들을 초대하여 특별 "합창 모임"을 합니다. 8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 성탄절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는 스칸디나비아의 겨울 추위 속으로 다시 나가기 전에 특별히 차린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저는 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초등학교 활동의 날에 종종 학교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제 언니들처럼 그렇게 저는 지금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램펄린 위에서 뛰어 노는 것을 좋아해요. 또 피아노랑 플루트 연주도 즐겨 합니다.

저는 열 살이고 가족 안에서 구남매 중 막내랍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 있는 언니가 두 명이 있는데, 언니들은 프랑스와 유타 템플 스퀘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가지는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까지 북쪽으로 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친척들을 찾아보는 걸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또 가족과 함께 수영도 즐겨 합니다. 여름이면 저희는 집 근처 호수를 찾습니다. 겨울에는 수영장도 물 미끄럼틀이 있는 실내 시설에 갑니다.



나 성전 보고 싶어!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은 할아버지 할머니 댁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성전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성전 뜰을 거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전에 대해,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성전에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출발해 봅시다!

미나는 좋아하는 것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가방에 넣어 가고 싶나요?

첫 번째 성탄절

젠 월크스

가족, 친구 또는 초등학교
반에서 이 연극을
상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6절을
읽으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나오는 사람

마리아

요셉

여관 주인

목자 1

목자 2

천사

..... 의상

의상은 간단히:
요셉은 목욕 가운,
마리아는 목도리,
목자들은 나무
지팡이.



..... 소품

마구간을 표현하기 위해
의자 두 개 사이에 걸쳐 둘
담요,
양을 상징하는 작은
베개 여러 개,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돌돌
만 담요.



노래: “베들레헴 가는 요셉” 1절(어린이 노래책, 22쪽)

마리아: 빨리 머물 곳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정말 먼 길을 여행해 왔잖아요.

요셉: 저기 앞에 여관이 있군요. 잠시 여기서 기다리면서 쉬고 있어요. 방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소.

[요셉은 마리아가 자리에 앉도록 도와준 후에 “문”을 두드린다. 여관 주인이 대답한다.]

여관 주인: 무슨 일이지요?

요셉: 하룻밤 묵어 갈 수 있을까요? 아내와 저는 먼 길을 걸어왔어요. 저희가 쉬어 갈 방이 있을까요?

여관 주인: 미안하지만, 빈 방이 없습니다.

요셉: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는 곧 있으면 아이를 낳을 겁니다.

여관 주인: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쓰시오. 남은 자리는 그곳뿐이요.

요셉: 감사합니다. 마구간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로 돌아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도와준다.]



제안:
등장 인물과 관객이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한다.



요셉: 여관에 방이 하나도 없다는군요. 하지만 주인장이 마구간에서 묵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다요.

마리아: 아, 밤을 보낼 곳을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마구간으로 걸어간다. 마리아와 요셉이 자리에 앉으면 장면이 끝난다.]

노래: “베들레헴 가는 요셉” 2절과 3절(어린이 노래책, 22쪽)
[목자들이 양 떼를 돌보고 있다. 천사가 등장하고, 목자들이 엎드린다.]

목자 1: 누구시요?

목자 2: 부디 우리를 해치지 마시오.

천사: 무서워 말라. 기쁜 소식을 가져왔노라! 오늘밤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느니라. 너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볼 것이니라.

목자 1: 어서 아기를 보러 갑시다.

천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 “빛난 별들”(어린이 노래책, 24쪽)

[목자들이 여관으로 가서, “문”을 두드린다. 여관 주인이 대답한다.]

목자 2: 저희는 아기 그리스도를 뵈러 왔습니다.

목자 1: 천사가 저희에게 그분이 구유에 누워 계실 거라고 알려 주었지요.

목자 2: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관 주인: 오늘 밤 한 아기가 우리 집 마구간에서 태어났소. 나를 따라 오시오.

[목자들이 여관 주인을 따라 마구간으로 간다. 저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누인 구유 옆에 앉아 있다.]

목자 1: 정말이었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정말 있어요. 천사가 말한 그대로예요.

목자 2: 이 아기는 정말로 세상의 구주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목자들과 여관 주인이 구유 주위에서 무릎을 꿇는다.]

노래: “고요한 밤”(찬송가, 134장)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제안:
막대기에 큰 종이 별을 붙여서 마구간 위에서 빛나도록 들고 있다.

안을 살펴보세요!



소피아 시, 9세, 브라질

성 탄절 전에 부모님은 사람들에게 나눠 줄 몰몬경을 한 상자 사 오셨습니다. 그때, 몇 권을 학교에 가지고 가서 선생님 세 분께 선물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실에서 음악 선생님과 마주했을 때 저는 '좋아, 소피아. 선생님께 한 권을 드리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선생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 몰몬경을 전할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실 모퉁이로 가서 아주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몰몬경을 선생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치자, 몰몬경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고개를 돌리셨고, 저는 몰몬경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이 몰몬경을 드리고 싶어요!"

책을 받으신 선생님의 눈길은 표지를 향했습니다. "안을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적어 놓은 짧은 글을 보셨습니다.

"아, 소피아, 이 책을 주어서 고마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안아 주셨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선생님께서 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가 제게 이걸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번 휴일 동안 이 책을 읽어 봐야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엄마께 달려가서 "있잖아요, 몰몬경을 선생님께 드렸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정말 멋지구니! 엄마에게 정말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어, 소피아."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선생님께 몰몬경을 전할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이 장을 두꺼운 종이나 마분지에 풀로 붙이세요. 그런 다음 인물들을 오려 내어, 공예용 막대나 종이 봉투에 붙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약전서 이야기를 실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



골리앗



다윗



다윗

날마다 성탄절처럼

선물은 모두 포장을 해서 트리 밑에 두었어요. 확실하죠?

케이트 스트롱인
실화에 근거함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어디나 기쁜
인사 나누네!”(Children’s Songbook, 51)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말리에는 신이 났어요.
이제 곧 트리 아래에 있는 선물들을
풀어볼 테니 말이지요!

이번 가정의 밤 공과는 엄마가
하실 차례였어요.

“왜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걸까요?” 엄마께서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신이기지요!”

아말리에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엄마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말리의 남동생 노아는 아빠의
도움으로 경전 구절을 하나 읽었어요.
그 구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는 곧 하나님을 위한 봉사이기도
하다고 나와 있었어요.(모사이야서
2:17 참조)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일이 된다는 뜻이지요?”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어떤 선물들이 있을까요?”
아말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친절하게 대해요.” 노아도
대답했지요.

“정말 좋은 생각이예요!”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의
선물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사람은



양로원에 가서 성탄절 카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아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말리에 누나요!”

“이 사람은 가정 복음 교육을 샀습니다.”

“아빠예요.” 아말리에가 말했어요.

그렇게 가족들은 구주께 드렸던 많은 선물들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날마다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청소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아, 하기 싫어.” 투덜거리던 아말리에에는 곧바로

이걸 기억해 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는 선물이겠지! 엄마를 도와드리는 건 예수님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말리에에는 행주를 찾아 반짝반짝해질 때까지 조리대를 닦았어요.

다음 날, 아말리에에는 돈이 생겼어요.

엄마께서 “십일조는 80센트를 내면 되겠구나.” 하고 알려 주셨어요.

아말리에에는 다시 기억했어요. 십일조는 계명이니까 십일조를 내는 것도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말리에에는 80센트를 십일조를 모으는 통에

넣었어요.

주말에 아말리에에는 소파 쿠션을 정리했어요. 어린 남동생이 소파에서 놀면서 쿠션을 내던졌거든요. “이것도 예수님께 드리는 내 선물이야.” 아말리에에는 말했어요.

성탄절 전날 밤에 엄마 아빠는 아말리에가 자랑스럽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구나. 참 잘했다.” 아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꼭 날마다 성탄절인 것 같구나.”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멜빈 제이
밸라드(1873~1939)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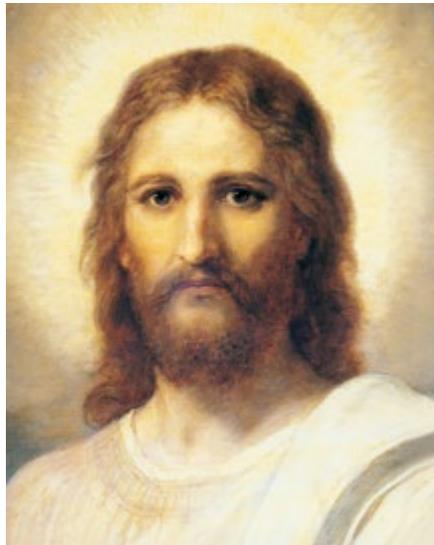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 느낌을 다시 맛볼 수만 있다면 현재와 미래의 내 모든 존재를 바칠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의 합당한 아들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생각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아들은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영으로 먹이기 위해, 영원한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

[구주]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간증을 제 영혼 깊숙이 느꼈던 …… 경험을 돌이켜 봅니다. 저는 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

…… 어느 날 밤, 저는 성스러운 건물인 성전에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저는 영화로운 분을 만나기 위해 성전의 한 방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기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본 존재 중 가장 영화로운 분, 영원한 세상에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한 그분이 높은 단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소개하기 위해 다가가자 그분은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고 저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부드럽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백만 년을 산다고 해도 그 웃음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품에 꼭 안으시고 축복해 주실 때 뺨속까지 녹아 드는 듯했습니다!

축복이 끝나자 저는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며 입을 맞추었고, 그때 세상의 구속주의 발에 있는 못 자국을 보았습니다.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분의 면전에서 그분의 사랑과 애정과 축복을 받았을 때 느낀 그 느낌을 다시 맛볼 수만 있다면 현재와 미래의 제 모든 존재를 바칠 것입니다!

…… 저는 십자가 위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봅니다. 저는 이마에 씌운 가시관에 찢리시거나 손이 못에 찢기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팔을 벌리시며 웃음 지으시는 주님을 봅니다. ■

Bryant S. Hinckley, Sermons and Missionary Services of Melvin Joseph Ballard (1949), 147~157에서 발췌, "Classic Discourses from the General Authorities: The Sacramental Covenant," New Era, Jan. 1976, 7-11에 재인쇄.

통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빛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필멸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베들레헴의 빛이십니다. …… 그분은 모든 인류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의 죄를 짊어진 것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사슬을 끊고 무덤에 영원한 승리를 거둔, 살과 뼈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부활하신 주님으로, 텅 빈 무덤의 빛이십니다. …… 그분은 *저의* 빛이며, *저의* 구속주이며, *저의* 구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

모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기 전에 우리가 품은 의심을 의심해 보라고 충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의심을 의심하고 신앙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까요?



44쪽

청소년

구주와 성찬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며 전달하거나 취하는 동안 진실로 무엇에 관해 생각을 해야 합니까?



48쪽

어린이

첫 번째 성탄절

구주의 탄생을 연극으로 만들어 보면서 성탄절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느껴 보세요!



74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